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科學의 功罪

一

去七日 華盛頓에서 열린 第三國際動力會議席上에서 米國國務長官 헐氏는 「今日의 世界情勢가 暴發 好戰的 傾向을 갖고 新戰爭의 威脅에 當面하여 잇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人間負擔을 輕減하기爲하야 使用되어야할 現代科學이 그와 正反對로 『戰爭이라는 殘忍한 目的을 爲하야 使用되고잇다』는 그릇된 役割을 하고잇슴은 甚히 遺憾이라는 뜻을 表한다음 끄트로 今日 科學者및 政治家는 武力衝突의 이危機를 避하고 平和維持를 爲하야 모든 手段方法으로 그努力을 倍加하지안흐면 안된다는 意味의 一大演說을 吐하엿다한다。果然 實際政治家인 헐長官自身이 이 잘못된 現象에對하야 切實히 늣긴배잇섯고 또 이잘못된現象을 是正하여야한다는 구든決心과 그努力에 依한 效果獲得에 어느程度의 自信을 갖고한말이엇는지는 疑心되는點이 적지안흐나 그가 말한바 演說內容만은 嚴然한事實 그대로이며 또 明日의 人間社會를爲하는者로서는 맛당히 한마듸 잇서야할 現下 世界人類의 共通的 重大問題이가 한다。

二

現代 科學文明이 人類社會에 莫大한 幸福을 齎來하엿다는것은 普通是認되는 말인듯 하나 學者에 따라서는 科學文明이 人間社會에 가저온 結果는 幸福보다도 罪惡이 오히려 더만타고 觀察하는者도 決코 적지안타。生産分野에 잇서 現代의 機械工業을 過去 手工業時代에 比較하여 보다면 生産能率로보아 幾百倍 幾千倍 優勝함은 煩言을 不要하는 事實이어니와 이것은 同時에 人間勞力 또는 負擔을 그만치 輕減하게 한것이오 人類의 幸福은 그만치增進된것으로 볼수 잇는것이다。그러나 事實은 正反對로 機械文明에 依하야 幸福이 增進된者는 少數에 不過하고 多大數의 人間은 機械同樣으로 옴직이어야 하게되엿슬뿐아니라 失業의 悲哀를 免하엿다면 싼賃金에 呻吟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勿論 今日 勞働者도 汽車도타고 人造絹도입을수잇스므로 科學文明의 惠澤을 입는것이 事實이지마는 眼下에 보이는것이 만흔니만치 物質的之에依하야 慾望未成就로오는 心的苦痛이 原始人보다 훨신더 甚할뿐아니라 勤勞하여도 生活難에 呻吟하게되고 일하고십허도 할일이업다는 悲哀는 녯사람으로는 想像도못하던바이다。

三

現代科學文明이 人間社會를 攪亂시키고 戰慄케하는事實은 軍需工業에잇서 가장 顯著하다。殺人光線、毒瓦斯等 人類社會에 必要치안흔 研究가 盛況으로 發達될뿐아니라 飛行機、潛航艇等이 交通機關으로 보담도 殺人的目的으로 더重大한 使命을 갓게된다는것은 다가티 哀惜할일이다。그러나 이것은 現在形態로는 어찌할수업는 事情이다。即現在의 經濟또는 國家組織으로는 이가튼傾向은 避할수업는 것이니 今日 사람은 누구나 個人利益을爲하야 努力하지안흘수업게된것과 한가지로 모든國家는 國家的存立을 保障키爲하야 軍備[illegible]다。그와 [illegible] 存在하여야할[illegible] 사람을 는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그[illegible]를 든든히 하지안흘수업게되엿[illegible]

[illegible]을 하는데 利用되게되엿고 사람이 支配하던機械가 도로혀 사람을 支配하게되엿다。따라서 機械와 人間關係가 合理的으로 解決되지안는限 여러사람의 人道主義的 科學者政治家가 아모리 떠들고 努力한다하드래도 科學이 가저오는 社會惡은 그로因하야 解消되리라고 생각되지 안는다。

九、一八記念日에 大反日示威計畫

大衆運動으로 全中에 波及?

事前防壓要求訓電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北海事件等 懸案의 大衆的排日事件이 各地에서 頻發되고잇는때에 又復 滿洲事變記念日九月十八日을 期하야 抗日救國聯合會가 主體가되어 中國抗日各團體를 糾合하야 一大反對데모를 行하려고 한다는 諜報가 外務省에 達하엿다 外務省에서는 事態를 極重視하고 十一日 若杉上海總領事에게 上海市長吳鐵城氏에게 對하야 未然에 이를 防止시키도록 訓電하고 嚴重抗議를 發케하기로되엇다 右抗日團體는 成都事件北海事件에 對한 日本側의 要求를 不當한것가티 宣傳하고 이를 中心으로 一大反日데모를 敢行하려는것으로 不祥事件이 各地에서 頻發되고잇는 이때에 이와가튼 大衆行動으로 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에危害를 及할 境遇에는 日中關係의 全面的對立은 不免할것이라고 外務當局은 中國側이 自發的으로 右運動의 解散을 行하도록 期待하고잇는데 中國當局의 態度如何로는 不祥事件勃發도 保障키難하므로 海軍省과도 連絡을 取하야 嚴重監視하기로되엇다

四相會議

【東京電話同盟】電力統制强化를 圖하는 四相會議는 十二日午前九時부터 遞相官邸에 開會하고 頼母木遞相을 爲始하야 馬場藏相 前田鐵相 小川商相이 出席하야 먼저 頼母木遞相이 遞信省原案인 民有國營案의 骨子가되는 民有國營法、發送電特殊會社法、同特別會計法의 三法案의 要綱을 提示하고 이에 基하야 詳細한 說明을 行하고 다시 前回의 四相會議에서 提出要求가 잇슨 九州、四國等에 地域的適用、料金低下計數其他의 參考資料를 全部提示하야 遞信省原案의 民有國營案을 中心으로 質疑應答을 거듭하고 審議를 愼重히 進行하엿다

電力民有國營案

原則으로서 承認

五相、他影響研究

【東京電話同盟】電力統制具體案審議第三次四相會議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遞相官邸에서 開會하고 頼母木遞相 馬場藏相 前田鐵相 小川商相及 大和田電氣局長其他關係官이 出席하야 遞信省에서 參考資料로

一、電力國營法案
二、日本發送電設備會社法案
三、同特別會計法案
四、電氣事業法中改正法律案
五、日本發送電設備會社事業計畫槪要
六、地域別國營의境遇에 料金低下의 計數

를 提示하야 頼母木遞相 大和田電氣局長으로부터 詳細說明이 잇슨後 審議에들어가 馬場藏相 前田兩相으로부터 九州地方을 一례로한 國營實施의 境遇에 料金은 어느程度로 低下할것인가 하는 質問에 頼母木遞相은 同地方은 石炭이 豊富하므로 果然 火力發電이 만흔 同地方의 料金이 低下를 보게될는지는 아직 明瞭치안흐나 事業形態를 全般的으로 고치는境遇에는 二割可量의 低下를 할수잇슬줄안다 境遇에 依해서는 三割의 低下를할수잇슬지도모른다고 民有國營案의 有利한 點을 들어 說明하고 馬場藏相은 財界方面의 實情을 說明하야 國有國營은 公債政策의 立場에서 反對이란 旨를 前回에 繼續하야 力說하엿다 頼母木遞相은 나는 遞信案인 民有國營을가장 良案이라고밋는다 諸君은 이보다나흔 어떤 代案을 가젓느냐고 代案提示를 求하엿던바 馬場藏相、前田鐵相、小川商相은 모다 代案은 업다고 辯明하고 民有國營案에 對하야 審議한 結果 大體로 民有國營案을 原則으로 認定하나 同案의 關係方面에 對한 摩擦을 起하는 點에 關해서는 前田、馬場、小川의 三相이 協議研究하야 다시 必要가잇스면 國防的見地에서 가장 關係기픈 陸海軍大臣의 意見도 聽取하기爲하야 五相會議를 開하야 具體案을 어든다음 頼母木遞相을 加한 六相會議를 開하기로 一致되엇다 따라서 四相間의 意見이 大體 一致되엇다 따라서 來週十五日의 閣議後 馬場藏相 前田鐵相 小川商相의 三相會議를 開하고 民有國營案의 關係方面에 對한 影響點을 研究한다음 潮田拓相 永野海相을 加한 五相會議를 開하야 具體案을 어든後 來週中에 頼母木遞相을 加한 六相會議를 開하고 具體案을 決定하야 大演習前에 廣田首相에게 報告하고 大演習後의 閣議에서 遞信省이 提出한 民有國營案의 原則을 認定하야 具體案이 決定될것으로 보이게 되엇다

從來政策變更코 政治結社도 認定

新警務局長에게 期待

朝鮮에서는 治安確保의 必要上 政治結社 或은 政治的集會는 거의 禁止狀態인데 最近 治安도 昔日의 比가 아니오 民衆의 레벨도 相當히 노파젓스므로 徐徐히 政治結社를 認定하더라도 조치안느냐 하는意見이 行하야 新警務局長에게 期待하는者가 出現하엿다 即

一、朝鮮의 地方自治制度는 아직 相當히 官治의 色이 濃厚하야 眞政의 意味에는 遠치안한데 民衆의 訓練도 一步一步 健實히 나아가고잇스므로 政治的訓練을 加하는것은 總督府의 施政方針이 地方自治의 完成을 目標로하고잇는 立場에서도 必要한것
一、民意暢達을 圖하기爲하여서도 政治結社를 認定하는것은 適策인것

이 重要한 要因이라고하야「依據케하고 알리게할 統治의 明朗化를 期하기爲하야 斷乎 從來의 禁을 解하라고 今回의 首腦部更迭은 絶好의 機會이라고 하고잇다

今年度新規公債 二億五千萬圓發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 政府는 今月二十二日의 實行으로서 今年新規公債의 豫定中 二億五千萬圓을 左記條件으로發行하기로 決定하엿다

◆發行條件
一、發行總額 二億五千萬圓
그中滿洲事業分 一億圓
一般人引受分 一億五千萬圓
一、利率 年三分五厘
一、發行額 九十八圓
一、期限 昭和二十八年六月一日 (十六年八個月)
一、發行方法 日本銀行引受
一、利廻 複利三分六六一 單利 三分六九三

그리고 右發行公債는 日本銀行으로부터 賣出할터이다

毒瓦斯使用警告

伊의反對로流産

眞疑判明되지안헛다는理由로

不干涉案에重大影響

【산·주안·드·루즈十一日發同盟】西班牙叛軍이 政府軍에 對抗하야 毒瓦斯를 使用할 意圖라는 報道에 鑑하야 英國大使넛볼氏는 西班牙駐剳外交團에 對하야 對策協議를 提言하얏다 外交團은 右提議에 基하야 十日산·주안·드·루즈에서 右會議를開催하고 內亂의人道化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얏다 席上에서 英佛兩國大使等이 叛軍에게 警告할것을主張하얏스나 伊太利政府는 毒瓦斯使用에 關한報道는 眞疑判明치안흐므로 警告할 理由는업다고 反對하야 結局 不問에 附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外交團은 또 西班牙兩交戰團體의 捕虜取扱에 關하야 意見을交換하얏는데 外交團이 本問題에 關하야 調停에 進出하는結果 交戰兩當事者間에 道德的壓迫을加할 것과가튼 誤解를生하야 不干涉案의 將來에 重大影響을 及한다는 意見이强하야 會議는 何等 成果업시 散會하엿다

伊、聯盟과協力

에國無視를條件으로

【羅馬十一日發同盟】聯盟事務總長아브놀氏는 聯盟理事會를 압두고 羅馬를 訪問하고 過般來伊太利政府當局과의 사이에 伊太利의 聯盟協力關係復活에 關하야 折衝을 繼續하고잇던바 뭇솔리니首相은 聯盟이今後 에디오피아問題를 審議치안흘것 또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及 에디오피아代表와 伊太利代表를 同席케하지안흘것을 條件으로 今後再次聯盟과 協力할것을 約束하여 아브놀事務總長도 大體이를 諒解하엿다고確聞된다

리-르罷業解決在邇

【리-르十一日發同盟】리-르市의 罷業은 一時 重大化를 念慮하엿스나 살랑그로內相이 親히 리-르市에 出馬하야 居中調停의 結果 十一日 罷業團도 工場을 撤收하게되엿다 目下 勞資代表가 妥協交涉中인데 交涉은 圓滿히 進捗中이므로 罷業은 數日中에 解決될것으로 豫想된다

伊、에디오피아에 植民軍組織決定

【羅馬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征服完了後 繼續하야 遠征軍一部를 同地에 駐屯케하야 治安維持에 當케하고잇는데 今回 드듸어 正規植民軍을 組織하기로 決定하엿다고 한다 即 關係法令을 脫稿하야 近近 閣議에서 正式決定할터이라고 傳한다

나치스黨大會서 히總統又復熱辯

【뉴른베르크十一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十一日 나치스黨大會에서 全國各地로부터 集合한 黨代表를압두고 將來에 對한 國民의 覺悟에 對하야 得意의 熱辯을 吐하야 聽衆을 感激시켯다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過去十八年間 祖國復興을爲하야 바친 큰犧牲이 他에 잇겟는가 我等은 祖國復興을 爲하야 熱烈한 努力을 하엿다 그래서 今日의 大量 이룬것이다 이는 一로 諸君의 努力에 依한것이다 我等은 斷乎 共産主義의 擡頭를 不許하고 國民이 이有害한 思想에 感染함을 不許한다 我等은 勞作과 建設을 願하나이는 我等의 計畫에 基하야行하려는것이오 볼쉐비즘、유대야이즘에依한 計畫은 我等의 斷然 不可라고하는바이다 我等의 獨逸은 지금 靑年國家로 今後 生長할 運命을 질머젓다 我等의背後에는 이미 後繼者인 힛틀러靑年團數千萬의 靑年男女가 기다리고잇다 이야말로 我等의 希望이오 將來의 保障者이다 諸君은 從來대로 諸君의 義務를 忠實히 履行하기를 希望한다

叛軍最後通牒

【앙데十一日發同盟】叛軍北軍司令官 몰라將軍은 十一日 마드리드政府에 對하야 萬若산세바스찬을 放棄치안흐면 十一日午後를 期하야 同市를 砲擊하겟다는旨의 最後的 通牒을 發하엿다고 傳한다

英國의强要로 日貨輸入制限

秘露의輸入配定制實制背後

【東京電話同盟】十二日 村上秘露公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秘露政府는 十日 目下 難局에 當面한 英國政府와의 通商會議의 經過內容一切를 公表하엿다 그一部에 再昨年十一月 秘露政府가 實施한 日本綿製品輸入配定制는 「一로英國政府의 執拗至難한 要求에依하야 不得已 斷行한것이란것을 明白히하엿다 英國이 그政治的威力과 求償제스추어에 依하야 秘露當局과 英國商唯一의 競爭相對인 日本綿製品輸入阻止의 工作을 執拗暗默中에 繼續코 잇든 事實이 白日下에 暴露되여 關係方面을 極度로 刺戟하고잇다

트로츠키氏處分

蘇强硬意見傳達

諾威政府回答에不滿코

【오스로-(諾威)十一日發同盟】오스로-駐剳 蘇聯公使빗쳐氏는 十一日午前 諾威外務省에 코-트外相을 訪問하야 反幹部派側의 頭目 트로츠키氏의 處分에對하야 다음과가튼 强硬意見을通達하엿다

蘇聯政府가 트로츠키氏의 國外追放을 要請한데對하야 諾威政府는 去三日 回答되엿는데 右回答은 蘇聯、諾威兩國間에 現存한 親善關係에合致되지안코 蘇聯政府로서는 右回答에 滿足할수업다 그러나 今回回答으로 諾威政府는 트로츠키氏의 國內在住에 由來하는 一切結果의責任을 負擔할것으로 思考한다

時事漫畵 「머슴사리도 어지간히 부려먹엇스나 이제는 한살림내여주어도……」이것도 뻘롬의 仁慈가아니면 못할일

人事·集會

◆中屋重遠氏 (前京城電氣會社常務取締役) 兵庫縣武庫郡精道村打出自宅에서十一日逝去

行政機構改革案

外、商兩案檢討코

調査局案을作成

【東京電話同盟】內閣調査局은十二日午前十時卅分부터 調査局全體會議를 開하고 問題의 貿易行政機構改革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外務、商工兩省當局은 事務的折衝으로는 問題의 解決은 到底히 困難하므로 調査局에서 兩當局의 試案을 잘 檢討한다음 調査局獨自의 具體案을 作成하야 이를 首相、外相、商相에게 提示하고 三相間에 政治的解決을 圖하도록 考慮하기로 決定하얏다 調査局의 立案方針으로는

一、機構改革은 國內外에 亘하야 一貫한 貿易行政을 迅速또는 圓滑히 遂行할수잇도록 强力한 新機關設置를 目標로할것
一、外務省案에依한 內閣直屬의 通商政策審議會設置는 屋上屋을 架하게되고 商工省案인外局案도 여러 難點이 잇스므로 兩案을 資料로 充分檢討할것
一、貿易行政上 外交에 關한事項以外의 一般的事項에 關해서는 新機關을 設置하야 行케하야 要컨대 二元的으로行하는것이 最善策일것이다

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어 具體案作成은 石渡調査官以下 關係調査官이 行하기로 하고 正午散會하엿다

마島奪取企圖는 政府軍大敗

【부르고스十一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은 地中海의要衝 마르요카島의 奪取를 策하야 四日總攻擊을 加하엿는데 叛軍의 反擊을맛나 戰死二千餘名을남기고潰走하엿다고한다 叛軍發表에 依하면 右戰鬪에서 叛軍은 機關銃二十一挺 彈藥五十萬發을 鹵獲하엿다고한다

濠洲、日本品에 輸入稅를減免

村井總領事의公電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는 生活必需品의 價格引上에 困惑하고잇는데 十二日 村井시드니-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濠洲政府는 十一日부터 販賣稅(現行五分)를 四分으로 引下하고 또 近近 一部生活必需品에 對한 減免稅案을 聯邦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엇다 또 右와 同時에 聯邦政府藏相은 十一日 프라이메-지稅年額七萬磅의 免稅를 發表하엿다

濠洲具體案에對해 近近日本回答手交

【칸베라十二日發同盟】日濠通商交涉은 去二十八日 칸베라에서 再開後 村井總領事는 가례드通商條約相과 交涉을 繼續하야去二日에 會議에서 가례드條約相은 日濠間의 通商紛糾解決에 關한濠洲側의 具體案을 提出하엿는데 村井總領事는 即時 이를日本政府에 參照請訓하겟다는旨를 述하고 會談을 못마엇는데 마츰내 十四日 會談을 再開하고 村井總領事로부터 濠洲側의提案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을 手交하기로되엇다

滿鮮拓殖創立總會 十八日新京에서

【新京十二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最近 增加를 示한 朝鮮人의 入滿移殖을 指導할 機關으로서 滿鮮拓殖公司를 設立하기로되어 六月二十五日 同公司法을 公布하엿는데 그準備가 進捗되어 九月十八日午前十時부터 創立總會를 開催하야 理事長二宮治重氏로부터 人事後 定款認可를 報告하고 如左히 重役選任을 行할터이다

理事 渡邊豊日子
同 木村 通
同 堤 永市
同 岡田 孟馬
同 常任監事 渡邊得司郎
同 高 元 勳

行政院、十日로 外人保護令發布

各省主席、各特別市長에

【上海十二日發同盟】成都、北海兩事件에 잇서서 滿洲事變記念日이 切迫하야 排日風潮惡化의 傾向에 鑑하야 行政院은 十日附로써 各省主席、各特別市長에게 外人保護는 各地政府의 責任으로써 行하라 外交問題는 中央에서 愼重處理하겟다 各市가 모다 紛擾를 大局에 影響이 업도록 注意하라 九、一八記念日이 切迫하야 無知의 徒가 故意로 일을 이르키는者가 업지안타 地方의 秩序維持、外人保護에 萬全을期하라는 命令을 發하얏다

修理中의大巡艦에 突然怪火

故意的点火로確認

【紐育十一日發同盟】米海軍의新銳大巡洋艦 인듸아나폴리스號는 過般來 부룩크린海軍造船所에서 修理를 밧고잇는바 八月二十五日 夜間으로 同艦上에 小火가 發生하야 大騷動을 演出하엿다 調査한結果 紹動送電線에 蓄音器用針을 多數押入하여서 이때문에 漏電된것이 判明되엇다 右는 造船所從業員이 故意로 工作한것이라고 [illegible]한것으로 보인다 부룩크린海軍造船所長 맥大佐는 十一日夜 右事實을 確認하고 如左히 發表하엿다 인듸아나폴리스號의 小火는 故意의 意狀에 基因한것은 疑心업스나 損害는 多幸히 [illegible]만에 끗첫다 容疑者는 아직 逮捕되지아니하엿다 米國海軍의 怪火事件은 一九三五年以來 四回入재인데 工事意狀에 基因한것이라고 確認된것은 今回가 처음인것만큼 全米에 異常한 衝擊을 與하엿다 海軍當局은 곳事件調査에 着手하엿다

英의聖地彈壓에 獨伊居留民撤還?

【예루살렘十一日發同盟】聖地팔레스타인의 情勢는 아라비아人의 테로行動으로 特히 緊迫化를 못하고잇는데 英本國軍의 增派決意를 굿게 가지고 英本國軍의 特派一個師의 到着을기다려 聖地一帶에 戒嚴令을 宣布할 方針이라고 傳한다 이에 英國駐屯軍과 아라비아人은 各所에서 小衝突을演出하고잇는데 이情勢로 예루살렘駐在 伊太利領事는 팔레스타인地方居住의 自國民에 對하야 何時든지 撤歸할수잇도록 準備를 命하엿다고한다 他方 獨逸領事도 同樣의 措處를 講究하엿다고 傳하나 確報는업다

議會召集終期 一個月繰上乎

議院制度特別委員會에서

【東京電話同盟】十二日 首相官邸에서 開한 議院制度特別委員會에서 議會召集期變更問題에 關하야 審議한結果 十一月下旬에 召集하야 一月下旬으로써 會期를 終了하는案이 가장 適切하다는데 意見이 一致되고 이 法制手續上의 細目은 法制局에서 研究는 次回委員會에서 最後的決定을 하기로되엇는데 特別委員會가 十一月下旬召集으로써 適切妥當하다고하는 理由는

一、議會가 劈頭解散이될境遇에 總選擧는 十二月下旬에 하게되므로 西北日本及 東北、北海道等과 가튼降雪地方에서는 눈이 그리만하오지 아니한時機에 選擧를行할수가잇다
一、會計年度의 變更을 行하지안허도조타
一、原則으로 會期는 一月下旬에 終了하고 年度內에 一個月餘의 期間을 남기게되므로 懸案未解決의境遇에 相當한期間會期를 延長하야 法律案其他諸懸案의 成立解決을 期할수잇다

는 等을 列擧하얏다

製法 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有馬靑山太綱三醫學博士創製
免疫元 AO (에이-오-)
結核
AO의治療的應用 解說呈上
肺結核、眼科結核、肋腹膜炎
皮膚結核、外科結核、
泌尿生殖器結核、喘息等
特히肺結核의初期及眼科的結核에卓効잇슴은 이多數醫學大家들의實驗報告로써確實하다
AO의豫防的應用
潛伏結核、淋巴腺腫、
虛弱體質、結核疑症等
特히腺病質並結核의疑心잇는學生과兒童에對하야서는꼭接種을試驗하야서發病豫防、體質改善을 圖謀하기를바란다
AO의診斷的應用
治療를兼한無害한診斷法
各藥店在售 大人用 一管及五管入 小兒用 一管及五管入
發賣元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 須美商店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壹及物本舖 大野合名會社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其他コールテン、防寒服一般 製造卸
(商店에限하야見本相場表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〇番地
若原重商店

專門製造直賣信用廉價日本一
大五道具 卸値段表進呈
大阪市東區 武村製作所
電話東一七八五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技工의精巧와品質의優秀에 依하야信用이敦厚합니다
執務用에 實務算盤
實用的에 萬古算盤 日之丸算盤
經濟的에 滿洲號算盤 愛國號算盤
懷中用에 富士號算盤 サクラ號算盤
小學生用에 敷島算盤 アサヒ算盤
算盤入의 美 手入器
大阪南久寶寺町二 合名會社 和田算盤店

健矢票
冬物品備
毛織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ー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冬物洋服品備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李相昊 記

喬林을버서나자 雪嶝白頭主峰!

淨砂를 곳업시깐 층대를밟고 (七) 一步一步寶座압으로!

「후! 비루서울습만 입어지 백두산바람 벼람을 아직드러보지도 못한모양이지 어데가보지! 이바람에 천지구경을 할라고! 산꼭대기에 올라서다가는 모조리 천지귀신이 되고 말껄!」 부낭시는 개엇스나 자동지듯 부는바람을 안고 길을떠나는 우리들을보고 따라온 마부들이말리다못해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도 유별란 바람이라 우리도주저를 할대로 햇지마는 오늘하로를 여게서 묵다가 지낫다 그대로 바람우에 비를더하면 오도가도 못할것이니 죽을 셈치고올라가자는것이다 할말은 벌서여저를 떠러젓다。한마장이나 너머온 우리들은 되도라설수도 업다。

흥성드문해진 익갈나무는 키가 점점나저진다。나면서 부터서북풍에 휘여진 큰나무는동남으로 반넘어 누어 병신이 된채 아조주저저버렷다。차츰올라갈수록 나무모양들은 더야릇하게된다 가지란가지는 모조리동남으로 깃발처럼휘여 연극장압헤꼬자둔 배우일홈쓴깃발처럼되여 서북편으로는 가운데줄기밧게안보인다。

○……○

술은다버서나왓다。지금부터는 풀뿐이다。간간히 땅바닥에그대로누어 몸부림치듯 울넝거리고 잇는 익갈나무의 번족이 모진 바람에 너울거리고잇슬뿐이다。술넘어서저나오고보니 바람은한결더세다。눈을뜰수도업고 고개를들수도업다。

「백두산이다!」압선사람이 뒤통수를어더맛고 부르지지는듯한 고함소리다。

어허! 그럿쿠나。백두산이다 백두산이 뵌나。백두산이나왓다。늙은벼개상고 봉오리세개가 하눌을우려 엇비슷하게 누어잇지안는냐。

둔하고도 무겁고도 두려운 곡선(曲線)이 서너번접잔케 굽을 거리고 지나간 저머리가 백두산꼭대기다。

백호에는 흰눈을 달포이고잇겟지。잉크병을 떠려트릴때 퍼지는무늬가튼 집서업는 흰눈의방사선(放射線)이 산의중 허리까지온자욱을 내여덥고잇다。

하눌을찔르고 소슨산이아니라 하눌을 비고누은산이다。우로치처오르는 힘보다도 미틀굴리는 힘이더큰산이다。아직도더노플여유를둔 산이아니요 이제는 다 노팟다고 자리를잡은산이다。

날낸장수의 씩씩한 기풍이아니라 미려도 웅지기지못할 친해도범접을못할 제왕의풍채다。저면이나 하자니 백두산이지。

○……○

간밤에 모두봉에서온비가 산꼭대기서는 눈으로내렷다。팔닥눈을 여름옷사이 머리에쓰고 바가하게저주는 백두산의섬차(雪)종)! 바람에시달린 몸이건만 기운이절로난다。

이제는 그나마 밀려부는듯한 속를두어서진다。화산재로된 솔모래가 민숭한 등성이를 더펏슬 뿐이다。누가이런 거창한 이룩을 해두엇슬까。광화문통(光化門通)네목 다섯목비의 한모퉁이로 덩굴두대를 밟고 우리는 올라가지안는가。어마어마한 이층층대를누가만드러두엇슬고。모래층층대는새로이 옥으로 깍근층층대라도 잇슴즉한 이곳이건만 거창한그송씨에 입이벌러질뿐이다。대신궁(大神宮)의 정전으로향하야 올라가는 바로그거룸이다。옷깃이저절로 바로잡힌다。

알고보니 이곳은 바람이심한 곳으로 루첩투만볏을두고 모래를 끄러부처 갓주어논한 층층대를 십리 이십리 걸처 만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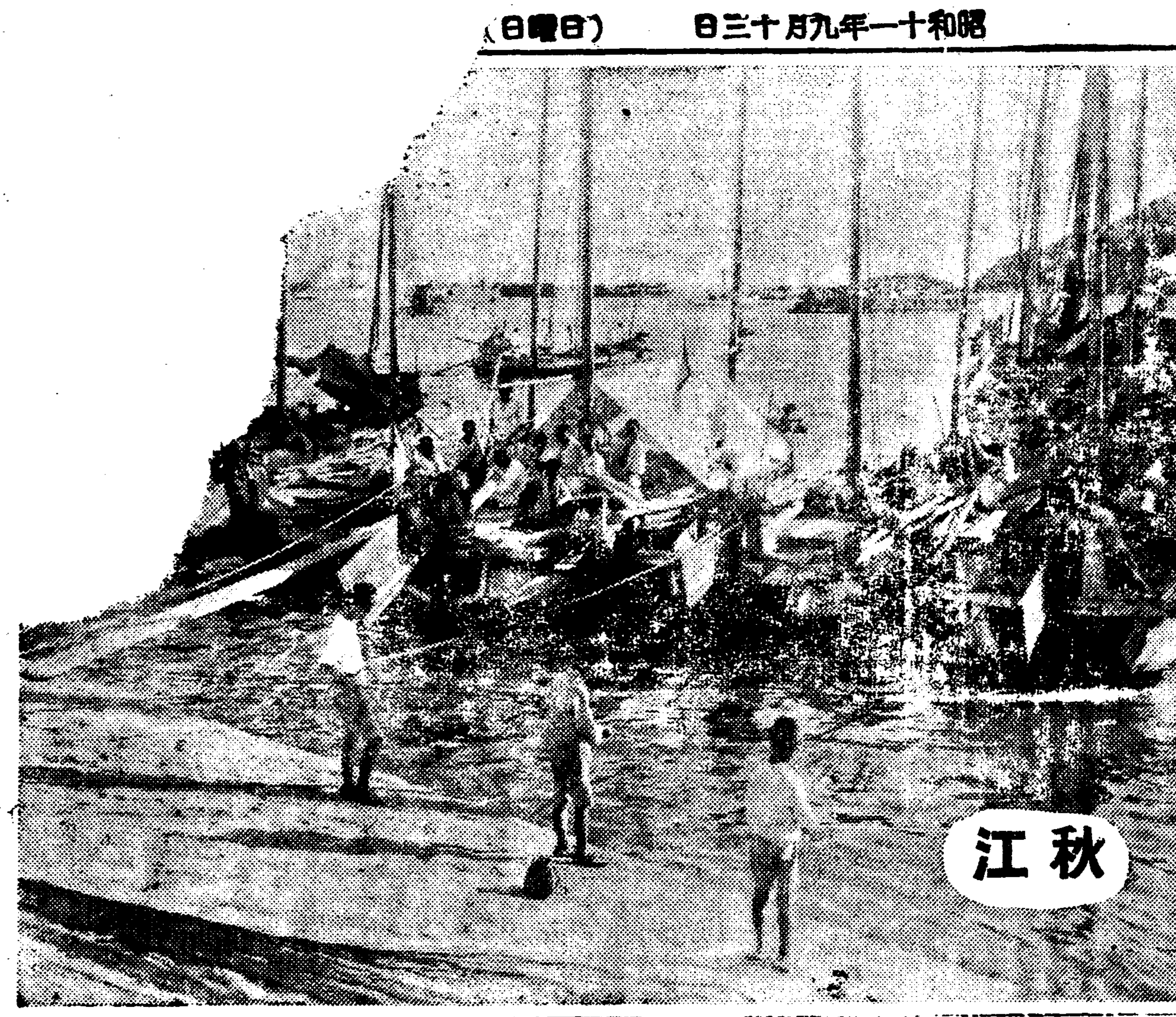
백두주봉(主峰)을 가운데두고 손뻣친자리 어섹한구석이라고는눈닥고보아도 엄슬만큼 꾸며둔그 조화는 여게와서 한번더 감복할뿐이다。

매일매양 비로서씻고 발낫업시 바람으로쓸고 갓업시 정사(淨砂)를뿌려 맑고 깨끗하게다거노흔 층층대를밟아 백두보좌를 향하야 우리는 올라간다。

(사진은 무두봉을 빼저나와 바라보이는백두련봉)

不二農場萬餘作人 平北道廳에歎願

苛酷한搾取에견딀수업다고 八個要求條項을主張



秋江

【新義州】평북룡천군(龍川郡)불이(不二)서선농장(西鮮農場)의소작인 일만여명은 농장주에게가 혹한착취와 무리한 대우를견될수가 업다하야 지난오일 평북도당국에 다음과가튼 탄원서를 제출하는동시에 소작령에의한소작조정신립을 하얏다 만여명소작인이 그억울한사정을 눈물로써 탄원하는 이사건의 귀결이 장차어찌될는지 일반은 크게주목하게되얏는데 탄원서의내용의미는

원래 이농장이란것은 간척지와 초생지인것을 소작인들이 피와땀으로써 개척한곳이다 그노력의 대상으로 본래 소작권을 매매하여 오든터이엇는데 불이농장이 지주가되자교묘한수단으로 그것을 전부업새버리고 지금와서는 소작인을 학대하야 구타 감금까지 마음대로하며 농량대부니、수세이니 하는것으로 소작인에게 채금만 늘리며 소작료도 평북관래에업는 오할팔분을징수하고 도도괴입지안는 차용증서에 미리도장을 바더다가는 비료대이니 종자대이니하야 마음대로 돈을 괴입하야 제두만 작고들게만들어놋는다 소작인의 수입은 모든비용을 제하면 수확의 십분지이밧게 되지못하는터인즉 이로써 사오인가족이 생활을 유지할수가업다 더욱이 금년에는 농장의 지도원(指導員)들이 조파(早播)를 하라함으로 조파를 하얏드니 묘(苗)가 모다 얼어죽엇섯다 그리하야 재파(再播)를하고 또내종에는 묘가부족하야 노픈갑스로 사대려이종을하얏는데 이종자갑과 묘갑슬 전부소작인에게 넘겨씨웟다 그리하야

(일)이땅은 소작인들에게 연고가잇스닛 영소작권을 인정하다

(이)금년종자갑과 묘갑은억지로 바더간것은 도로내여라

(삼)소작료는 오할로하라

(사)현장에서 타작을하고도 농장에가서 타작한 벼가축이 난다하야 부족근수라고 소작인에게 강제로바더간것은 도로내여라

(오)탈곡(脫穀)할때에는 검시원이립회하고 탈곡을 한것인데「부더이」(草殼)속에도 벼가잇겟다하야 강정하여간벼도 도로내여라

(륙)농장의 탈곡긔(脫穀機)를 사용치안는사람에게도 긔계료라고 바더간것은 도로내여라

(칠)탈곡할때에는 농장에서 립회만할것이오 인부사용 일활까지 간섭치말라

(팔)비료를살때는 그매약서를 소작인에게 보히고차용증서에 갑슬매여노아라

는것을 주장하고잇다

素砂驛附近에서 水密桃窃盜盛行

【仁川】부천군소사면(富川郡素砂面)은 수밀도의명산지로 그일홈이높흔바 근자에 이르러서는 농부군원에 천여절도가 성행하고잇다 이에 동주재소원이철야경계한끄테 동조종리(里)오십번지 문귀남(文貴男)(二二)을 인치취조한결과 마천내동사건의 관련자로 판명되엿다는데 범죄는 전후 수십회에달하야 수백여원에 달한다고한다

"石福"金密輸事件 送局은十四日頃

지난달십오경부터 시내황금정 이정목 석복광업회사(石福鑛業會社)에관련한 금밀수출(金密輸出)사건을취조중이든 시내본정서에서는 취조의진행에따라 사건의내용이 의외로부진함에 아연긴장하야 류치중의 좌등동치(佐藤東治)(三一)외다섯명에대하야 준렬한취조를계속하는한편 대련에잇는 우궁리길(雨宮利吉)(三七)을 체포압래하는등 사건의진전은 자못주목을끌으렷스나 이래 삼개월이상의취조결과 밀수출과 탈세(脫稅)의혐의가 농후하여젓슴으로 전긔관게자일곱명은 십사일 송국하기로 결정하엿다고

災民을救하자! 開城人士도總動員

家家戶戶에서據合한것이 二千餘圓巨額突破

【開城】하늘은 무심하야 가난한이따에 마우(魔雨)를 퍼부어 이천생명을「몰살」시키고 구십만 리재동포를 내엇다 그들을 구하자는 부르지즘은 방방곡곡에 노파기는이때 더욱 개성부민의 순정에불타는 의협심은 빈부를 가릴것업시 고조되고잇다 일즉이 개성부정은 부내신얼명 정총대(町總代)를 동원시켜 만호에 개성에 매호십전비례로 한달동안에 일천원을 것기로한바 불과 오일지간에 전부 수금되엿슬뿐 아니라 가정부인들이 자진히사 한의복도 수백점에 달한다고한다 또는 개성각단체 언론긔관 유지들이 따로히 구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금품모집에 련일활동한바 불과삼일지간에 역시、천원수금을 모집케되엿다바 금품일마가 더거칠지 모른다하며 그외 남녀중학 보통학교들은 월사금을 제때에 못내는 무산학원 아동들까지 순정의 의협심은한결가태서 한푼의돈 한벌의옷으로 정성을표하고잇다 이외에 자진히사로써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개인으로 그리고 이국인들까지 본보개성지국을 친히차저와 금품을 기탁하는건수가 매일 삼사건식 답지하고잇는현상이다

하로품갑슬 災地同胞에

開城鮮一工社職工들이

【開城】참절비절한 재지에서방황하는 구십만동포를 구하자는 의협심은 빼저린동포하는 공장직공에게서 더욱열열하다 부내만월정(滿月町)선일공업사(鮮一工社)직공일동으로 이십원오십전과 그후직원일동으로 칠원을 지난십일일 본보개성지국에 기탁하엿다

楊坪町에서도 衣類百六十五點

李福龍總代가募托

【永登浦】시내양평정(楊坪町)정회에서도 총대리복룡(李福龍)부총대 김준긔(金俊基)기타간부제씨가 의복일백륙십오점을 모집하야 십일일본사영등포지국으로 기탁하엿다고한다

「防空日本」映畫會

경성부와 경성국방의회 경성방호단의 한국주최로 방공일본이라는 영화를 십이일부터 오일동안 경성부민관에서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이그회에 경성국방의회에서는 부민관상층강회실에 방독용구(防毒用具)기타방공사상함양에 관한 물건을진렬관람시킬터이라한다

淑善이는어데갓나?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이삼십팔번지 홍사흥(洪思興)씨의 맛내딸 세살먹은 숙선(淑善)이는열하롯날 오전열한시쯤에 남대문시장으로 그어머니와 우거지를 주으려가는데 딸아가다가 잡답한장군들바다에끼어 부지거처가 되엇는데 누구던지 그아이를차저주면 생전그은공을 못갑흘것이라고 그부모는 본사수부에와서 눈물의부탁을 하고갓다。

日曜講話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初代敎會 邊永瑞氏
午後七時半 未定 文章郁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敎會의職能 朴淵瑞氏
午後八時 初代敎會 邊永瑞氏
◇尙洞敎會 晝間 하나님은사랑이시라 姜泰熙氏
夕間 罪와對敵하라 金聖魯氏
◇宗橋敎會 午後三時 人生의意味 邊永瑞氏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罪의競走의選手 裴恩希氏
예수와同行하자 金英珠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方丈의不思議 朴聖權氏
◇基督敎朝鮮監理會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章志不變靑年 洪淳浩氏
午後七時半 하날의보화 金鎭浩氏
◇復活社講堂 午後一時半 救世主待望의欲求 金敎臣氏

仁川栗木里에서 殺人强盜犯突現

現金八十五圓을强奪潛跡 仁川署는非常陣布張

【仁川支局電話】십이일오후다섯시반쯤하야 인천부우각리(仁川府牛角里)삼십번지 문영로(文永老)(三一)는 경인선 오류동(梧柳洞)역전 그의친구집에서 지고자긔집으로 도려오다가 인천부률목리(栗木里)회장장압에서 어떤괴한에게 날카로운 칼로 습격을당하야 현장에서 직사되엿다 금보를바든인천경찰서에서는、현장에 출동위원을 긴급출동하야 경찰 현금이강탈되엿슴으로 강도의 소위로인정하고 곳전서원을 총동원시켜 물샐틈업는 수사진을펴고 괴한의행방을엄탐중이다

市內廿四普校 秋季運動日割決定

천진란만한 아동들의 기쁨하는 추긔운동회-부내각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는 오는십팔일의 정동(貞洞)주교(舟橋)룡강(龍江)각보통학교의 운동회를 비롯하야 시월 십삼일까지 부내 이십사교가 순차로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그일정은 다음과갓다

▲貞洞 舟橋 龍江各普通學校는 九月十八日 ▲崇仁普通學校는 九月十九日 ▲淸雲普通學校는 九月二十一日 ▲孝昌普通學校는 九月二十二日 ▲麻浦 惠化 阿峴 各普通學校는 九月二十三日 ▲齋洞普通學校는 九月二十四日 ▲仁峴 水下洞 德壽 昌信 壽松 龍山 往十里各普通學校는 九月二十五日 ▲渼洞 竹添町普通學校는 九月二十六日 ▲漢江 永登浦普通學校는 九月二十七日 ▲校洞普通學校는 九月二十九日 ▲梅洞普通學校는 十月七日 ▲於義洞普通學校는 十月十三日

運動競技

籠球競技規則改正 十月一日부터實施

日本籠球協會에서는 規則審判委員會를열고 다음과가티 從來의 規則一部를 變更하는同時에 今年十月一日부터施行하기로되엿다

◇改正規則大要

一、세콘드・써-클、센터-・써-클과 同心圓으로半徑一八〇糎의圓을 새로히코-트上에그려「센터-」에서「쩜프볼」할때는 競技者外에는「볼」이「탓프」될때까지「써-클」外에 잇슬것

二、持球者가 競技에 加入할際 審判에게 其旨를 報告한 後에는 卽時다른競技者와 通意할수잇슴

三、「차-지드・타임・아웃」은 四回까지 許諾함

四、「프리-・스로-」를 하고잇는「틈」의競技者가 反則할때에는「꼴」이되드라도無效로한「꼴」의 相對便의「아웃・오프・파운드」가됨

五、「코-취」及「릴」關係者의「테니칼・파울」을 嚴重히 取締하는條項을 挿入함

六、相對便의「슈-트」를 防礙하든지 또는 相對便의「볼」을 손으로 빼앗슬때에 相對便의손에接觸하드라도 身體的 接觸을하지안으면 이것은 反則이라고 看做치안는다 但이것은 實實하게「볼」에 對하야「프레이」할때에 限함

七、「쿼-타-」制의 競技에 잇서 第一及第三「쿼-타-」의終止信號와同時에또는其直前에이러난反則에依한「프리・스로-」는 다음의「쿼-타-」開始前에 行하며 競技는 그대로 繼續함

堀口歡迎拳鬪 十九日京城運動場

朝新主催의『피스톤』堀口歡迎拳鬪大會는 來十九日(土)午後七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이날의入場料는『링사이드』三圓 一般一圓 學生五十錢을밧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對陣은 다음과갓다

【六回戰】
鶴田(東京)…伊差川(神戶)
新羅(大阪)…藤田(浪速)
長谷川(東京)…瀧口(神戶)
吉田(東京)…太田(神戶)
靑木(東京)…鈴木(神戶)
楠本(東京)…强羅永(大阪)

【十回戰】
堀口恒男(無)…吉田博民(大阪)

庭球卓球京畿豫選

第十二回朝鮮神宮競技軟式庭球及卓球京畿道豫選會는 來二十日午前十時부터 硬銀코-트(庭球)와城大豫科醫學部 卓球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者는 十六日까지 現住所 姓名 年齡 職業 及出場種目을 明記하야 參加料參拾錢과함께 京畿道地方課內京畿道體育協會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先着 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無料進呈

孫基禎은世界第一!

몸만튼튼하면 무엇이나 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 爲先 世界的 强壯劑百補丸을 쓰시요

世界第一紀念

●獨逸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孫基禎이一等!이榮光、이名譽를 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 紀念體育館이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振動하는 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 健康을爲하며 또

●이世界的名譽를 慶祝하기爲하야 百補丸十圓分 一劑사시는분께 (拾圓包半劑入) 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하얏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 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 中止하게됩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藥價 一劑特價十圓 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는 周旋人께 一劑 無料進呈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 百補・不老回春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萬金不換의 此事實!

●朝鮮의 貴族 兩班 大臣 各界朝野名士諸氏의最大賞贊 愛用을 밧는 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임니다

●今回 獨逸伯林에서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까지 愛用된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이며 百補丸은 補血、强壯劑로 果然 世界第一임니다

●世上에는 別別 虛無誇大한 廣告도만흐나 事實 百補丸과갓치 効力조흔藥은 다시업슴니다

●百補丸의 偉大한効力은 只今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事實을밋고 쓰시요

◎◎靑春을 延長하고저하는사람 不老長壽를 希望하는 사람은 쓰시요

◎過飮過色人께特速効합니다

初秋、天高馬肥節이라 健康回復의 最好期는왓다

●여름장마와 더위에 全身이衰弱하여진분

●性慾이減退되고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분

●消化不良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四肢가 勞困한분

●肺가不足하야 活氣가업고

●氣血이 不足하야 全身의 元氣가 업는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世界的補血强壯劑 百補丸을服用하여完全이하고 씩씩한 靑春의 所有者가 되시요

◎나무가마르려고할때에肥料와 물을주지안니하면 그나무가어더케 됨니가

◎사람이 性慾이 줄고 氣力이업고 男氣가나지아니하는때는 조혼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나무에 물아니준것갓치 衰弱하게 됨니다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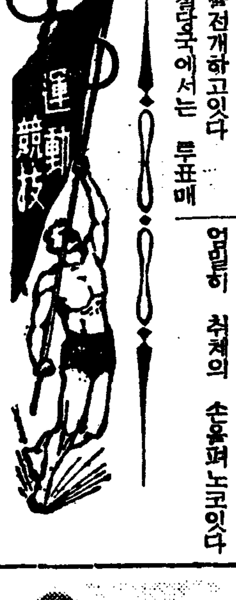
振替 五番 電光六三二番

十八名
當한激戰豫想
아프로 一週日박게 안남겨두고
京城府議員補選戰

경성부구역확장에따라 부회의원 십오명을 보충선거할 선거기일은 아프로 일주일(이십일)박게 남지안헛는데 현재 후보자로나선사람은 ●전부이십팔명으로 영등포(永登浦)에 일곱명 서부에 여섯명 동부에 네명 중부에십일명으로 분립하여잇는데 중부는 정원다섯명에 대하야 다섯명이나 초과되여잇슴으로 상당한 격전이 연출될것으로 보이며영등포에도 세명의 정원에 네명이나 초과되여잇고 서부에는세명의 정원에 그배로 되여잇슴으로 반수는 떠러트러야 될형편이므로 역시 상당히 투표의 쟁탈전이 전개될 모양이다 그러고 동부에는 정원세명에 대하야 겨우한명의 초과이므로별로히 격전을 연출할 정도는아니나 그구역안의 유권자의 투표를 다른 격전구역의 후보자에게로 빼앗기게될 념려도 업지안흐므로 역시안심할수는 업는 형편이다 현재 각립후보자들은 포스터 문서등으로 정견발력한 운동을전개하고잇다 일방 경찰당국에서는 투표매수운동이 잠행되지 안는가하야 엄밀히 취체의 손을펴노코잇다

二階堂夫人도出馬

【永登浦】 영등포경찰서(永登浦警察署) 이게당서장부인인 二階堂夫人(雪子) 며시도 의복 식사철을 차가지고 친히본지영등포지국으로 갓다가맛기고 도라가다고한다



中東軍連覇
强豪普成高普軍延長戰에惜敗
留學生主催柔道盛況

在東京朝鮮留學生 武道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校 對抗柔道大會는 十二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鍾路中央基督教靑年會 體育館에서 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斯界의常勝軍中東과 强豪普成이 決勝戰에 對하게되여 悲壯한 熱戰을展開하야 滿場觀衆으로하여금 熱狂케하드니 마침내 延長戰에 드러가 中東代表 韓聖律君의 孤軍奮鬪로서 榮譽의 覇權을 連二年 獲得하엿다

決勝戰 (審判李東壽)
【普成】敗 【中東】勝
○車成範……李相敏×
△金在璜……金光浩△
×[illegible]……[illegible]○
▲鄭泰[illegible]……林[illegible]△
△[illegible]……[illegible]△
代表延長戰
△車成範……[illegible]△
×金在璜……[illegible]○

培材軍大勝
對京醫專럭비
(寫眞은 優勝한 中東軍)

朝鮮럭비協會主催의 秋期리ー그戰第七日의 培材高普對京城醫專戰은 十二日午後三時五十八分부터 龍山球場에서 原氏審判下에 開始한바 培材軍 始終壓倒的 優勢를 보이며 六十五對零으로 京城醫專軍을 擊退하엿다

培材高普65(3332…00)0京城醫專

開城女子庭球에 同德女高優勝

開城高麗公論社主催의 第一回全朝鮮女子個人庭球大會는 十二日午後二時부터 開城松嶽山「코ー트」에서 擧行한바 이大會에 出場한 同德女高普選手는 强敵을 물리치고 同大會最初의 優勝旗를 獲得하고 同夜十時五十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하엿다

殖銀11 鐵道8

京城實業野球聯盟戰第一日…殖銀對鐵道戰은 十二日午後二時八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佐田(球)橋口、津島、富田(壘)四氏審判下에 鐵道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十一A對八로 殖銀軍이 勝하엿다

鐵道 200030201 ─8
殖銀 50330000A ─11

實業野球日程變更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秋期野球리ー그戰日程을 다음과가티變更되엿다
▲十三日(日)府廳─鐵道(午後一時)殖銀─遞信(午後四時)

鐵道、遞信各勝
◇實業庭球第一日

▲十五日(火)京電─府廳(午後四時) ▲十六日(水)遞信─鐵道(午後四時) ▲十九日(土)鐵道─京電(午後一時)遞信─府廳(午後四時) ▲二十日(日)殖銀─京電(午後一時) ▲廿三日(水)遞信─京電(午後一時)府廳─殖銀(午後四時)以上全部京城球場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의 秋期리ー그戰第一日은 十二日午後二時부터 朝鮮코ー트에서 朝鮮、殖銀、府廳、鐵道、遞信、專賣、府廳等의 入場式이 잇슨後 春期리ー그戰의 覇者인 專賣局의 優勝旗返還이 잇슨後 秋期리ー그戰에 入하야 朝銀對鐵道(朝銀코ー트)와 遞信對專賣(殖銀코ー트)戰이 同三時에 各各열린바 다음과가튼 成績으로 鐵道、遞信兩軍이 得勝하엿다

【鐵道】勝 【朝銀】
(第一라운드)
○(長沼 秋山 4…2 木津 藤田)×
○(郡司 渡邊 4…0 横田 庄司)×

(第二라운드)
×(朴[illegible] 吉田 3…4 加藤 中川)○
○(長沼 秋山 4…1 加藤 中川)×

【遞信】勝 【專賣】
(第一라운드)
○(松田 李鍾植 4…1 李鳳基 安在景)×
×(朴鎭作 大友 2…4 白潤福 李寅世)○
○(宮崎 孫錫鎭 4…2 黃基成 淺野)×

(第二라운드)
○(松田 李鍾植 4…1 白潤福 朴寅世)×

◇今日의運動◇

▲野球‖秋期리ー그第二日 府廳對鐵道(午後一時) 殖銀對遞信(午後四時)以上京城球場
▲럭비‖秋期리ー그第八日 臺灣對朝鮮(午後二時) 京中對龍中定期戰(午後四時) 以上龍山球場
▲水上‖第十二回朝鮮神宮水上大會第二日 午後零時半 京城府營풀

洞里洞里救濟品―右上으로부터 玉川町 天然町町會、蛤町町會、鍾路四丁目町會、東崇 蓮建 梨花町會 左上으로부터 蓮池町會、西大門町會、鍾路五丁目町會 昌信町町會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十二日現在)

物品合計 五萬八千三百四十三點
白米合計 六俵七升六合

南部婦人會
衣類 二四八點

梁雨露德 十點▲李基任 十點 諸昌奎 十點▲芮相烈 九點 芮善禮 五點▲李丙圭 七點 丙圭舍郎宅九點▲李貞圭 二點

朴今順 十點▲張宗植 六點 李基善 十一點▲吳賢子 二十點 吉晋全 二十點▲宋松順 九點 金明貞 十點▲裵運煥 三十點 裵運煥보석 十點▲韓潤熙 九點 孫在順 二三點▲金載鎭 二〇點 金昌燮 八點

蛤町町會
衣類 二七七點

姜炳順 二點▲金昌雲 一點 尹鶴天 一點▲權道容 十一點 諸興培 六點▲朴錫石 一點 金元弼 二點▲諸鍾克 九點 朴海運 四點▲丁遠先 六點 楊道興手巾半打▲具萬壽 五點 朴點壽 二點▲金洛圭 五點 徐廷福 一點▲金景煥 四點 李鍾根 三點▲白仁植 四點 權鍾玉 二點▲李相俊 一點 柳德基 三點▲朴周哲 二點 金大熙 二點▲沈雨成 一點 劉載三 二點▲沈宗元 一點 白福大 二點▲李元植 一點 崔凡用 三點▲蔡相昱 二點 節然九 四點▲吳昌準 一點 劉聖哉 六點▲李昌植 三點 李閔宅 一點▲金永植 一點 李聖範 二點▲金壽萬二十一點 小田新一 三十五點▲李浚善 三點 宋俊燮 六點▲裴星七 三點 金有泰 七點▲李載淳 一點 朴泰煥 三點▲金慶玉 九點 申任龍 一點▲李鍾錫 一點 金昌盛 一點▲池熙春 一點 金貞成 三點▲閔仁昌 一點 朴永學 二點▲金相根 二點 李長九 五點▲徐丙先 四點 安慶順 三點▲河興基 二點 男平甫 二點▲朴容俊 一點 金東根 一點▲金連成 三點 崔永輪 一點▲崔炳逸 一點 崔應徙 一點▲朴九燮 一點 李光燮 三點▲李興龍 五點 李春明 一點▲金應檉 一點 金壽奉 二點▲張宇相 三點 金學海 六點▲金榮培 一點 金正善 三點▲韓明童 一點 金鎭玉 二點▲權寧昱 二點 嚴永根 一點▲植村靜藏 二二點

蓬萊町四丁目町會
衣類 一九四五點

崔泰鎭 卅一點▲崔鳳植 十二點 宋龍煥 六點▲李順泰 三點 金正相 三點▲裵錫煥 五點 丁大元 四點▲張泰鎬 一點 孫龍玉 一點▲安泰俊 二點 朴鼎富 三點▲朴建謨 二點 崔鳳先 一點▲金順昌 四點

李秉兌 二點▲金鍾學 三點 朴鍾燁 七點▲諸東元 四點 金昌鍛 二點▲金大源 三點 金永泰 二點▲李壽昌 一點 宋建培 二點▲姜榮植 一點 朴元植 二點▲張泰民 一點 申宗淳 三點▲鄭琪和 三點 李興載 三點▲安鍾浩 二點 柳 鈺 九點▲丁仲燮 一點 姜禹卿 四點▲金貞淑 七點 黃義玉 三點▲高昌彦 三點 李亨植 一點▲宋洪烈 四點 李貳載 二點▲鄭仁基 三點 尹相龍 四點▲金壽培 二點 張錫敦 四點▲張 氏 四點 禹濟均 二點▲諸甫陽 二點 鄭鎬榮 二點▲金慶三 二點 崔千山 四點▲許義立 五點 李弼容 七點▲金成三 一點 金秀東 一點▲李重一 三點 韓雲澤 三點▲鄭寅協 十五點 鄭基鴻 三點▲徐鳳勳 一點 劉 璘 三點▲劉鎭福 一點 安基昌 六點▲金東成 二點 梁 氏 二點▲康陳燮 二點 李勝愚 五點▲梁姓女 四點 金在河 六點▲韓基錫 二點 李圭鉉 八點▲全相默 三點 芮容圭 六點▲鄭泰尙 三點 郭永彩 四點▲李光雨 五點 孫泰根 七點▲田豊圭 三點 鄭鎭岐 四點▲尹利燮 五點 金連順 二點▲李順福 一點 金敎雲 七點▲李長成 二點 朴容煥 二點▲張慶範 二點 印斗星 三點▲金魯元 四點 金明集 一點▲李清來 四點 車相根 三點▲朴文基 一點 宋發承 一點▲吳陳錫 二點 白采豊 二點▲朴杜鉉 二點 金慶周 四點▲金淳培 二點 諸鍾淳 二點▲李先浩 二點 洪淳鵬 二點▲文永默 二點 朴元宮 一點▲安元石 三點 文允植 二點▲金佛煥 一點 李多福 二點▲兪炳弼 一點 朴杏花 九點▲朴昌順 二點 金石順 二點▲崔永弼 二點 朴柄裕 三點▲吳寧世 五點 郭 世 一點▲鄭明植 三點 任尹伊 一點▲金學伊 一點 朴公業 三點▲諸興成 五點 金在瀛 一點▲李雲海 一點

崔道弘 四點▲宋文甲、一點 李顯成 一點▲金榮太 一點 金興基 四點▲朴英鎭 一點 諸成玉 二點▲邦在五 三點 任東均 二點▲林貸女 二點 朴福鎭 三點▲南春玉 一點 崔順在 三點▲金化鎭 一點 高秉淳 九點▲金一鎭 二點 李東明 二點▲李載鉉 二點 權浩植 一點▲李瀚洙 二點 李[illegible]秀 二點▲[illegible] 一點 權秦愚 四點▲丁丙鳳 二點 李瀚益 三點▲金相瀅 二點 張聖煥 二點▲柳元[illegible] 一點 李熙寬 二點▲申彦基 一點 朴相鎭 三點▲諸玉鳳 一點 曾圭鳳 二點▲崔南順 一點 宋秉鎭 一點▲金順東 二點 金相衛 五點▲金詰圭 三點 劉光烈 一點▲韓五鳳 一點 李判成 五點▲盧順玉 五點 李根成 一點▲金平山 二點 南道山 五點▲朴在奎 三點 梁奎煥 五點▲李千福 三點 金錫煥 二點▲朴鍾尙 一五點 金星七 四點▲鄭丙斗 二點 李夏永 二點▲金在明 二點 李性烈 五點▲李泰植 二點 金學鵬 四點▲朴容達 一點 李高榮 二點▲宋秉敦 六點 崔性佐 一點▲成大鏞 三點 李昌錫 一點▲河凡伊 一點 金泰榮 一點▲洪丙裕 四點 朴興熙 五點▲韓士吉 三點 金允秀 三點▲成興俊 八點 金玉同 一點▲丁善慶 二點 權成鎬 六點▲崔勝元 三點 洪性赫 五〇點▲田中敬子 三點 島田嘉吉 一四點▲金成俊 三點 成興寬 四點▲中付盛一郎 一六點 崔德宇 七點▲朴泰植 一點 白仁壽 四點▲金命植 二點 金貞淑 三點▲金富德 三點 申鶴均 三點▲安道山 三點 金粉玉 二點▲閔興基 七點 陳敎學 五點▲金永云 一點 康錫祐 一點▲金鳳雲 二點 洪性旭 一六點▲李鍾燁 二點 李凡伊 一點▲朴建培 二點 朴正和 二十點▲韓順汝 一點 李時東 一點▲尹 泰 一點 朴容謨 一點▲宋化眞 四點 林貴奉 四點▲朴敎蓮 五點 金紅燕 六點▲李壽來 三點 金基來 三點▲嚴俊燮 一點 諸元山 一點▲金◦極 三點 朴春成 三點▲柳春年 一點 朴興德 六點▲徐點順 二點 白昌熙 十三點▲崔元植 二點 朴昌淑 二點▲白基善 二點 金德元 二點▲全鳳雲 二點 金和植 十一點▲曹在雲 二點 金正植 五點▲曹大煥 四點 金鎭成 二點▲金安熙 四點 金益元 一點▲董元植 二點 金永春 一點▲吳泰植 九點 秋聖煥 二點▲南廷鎬 一點 鄭基鴻 六點▲李琰秀 二點 申順甫 六點▲李元特 十一點 文一鎬 二點▲韓士錫 二點 任宗圭 一點▲金淳培 五點 洪鍾贊 一點▲李敏弼 三點 崔榮煥 三點▲金益環 三點 梁順煥 四點▲無名氏 二點 金仁鉉 四點▲李學現 二點 李淩榮 三點▲李季珉 三點 安一成 五點▲金周榮 四點 禹聖善 四點▲諸英在 一點 金成基 二點▲崔永信 三點 洪淳星 七點▲兪致福 五點 朴應道 一點▲朴敬淳 九點 孫聖一 五點▲李春寶 二點 吳興仁 一點▲李壽岩 二點 崔學善 二點▲梁壽昌 三點 鄭甫京 二點▲金萬元 十點 李丙敦 一點▲沈仁鎬 六點 李九乭 三點▲宋周文 二點 李濟夏 四點▲陸德在 四點 權寧學 三點▲洪淳亨 二點 李圭漠 五點▲金昌淳 一點 李駿衡 一點▲黃哲周 五點 廉雲祚 二點▲金重模 一點 崔元成 一點▲金德秀 九點 崔順福 三點▲崔鎭烈 六點 車雲相 四點▲李聖在 二點 李德三 三點▲李丙魯 二點 金天雨 二點▲林命福 一點 張基完 四點▲朴斗東 一點 柳寅昌 二點▲崔永奎 五點 諸相浩 三點▲金圭鶴 一點 李寅來 二點▲諸秉正 一點 金元集 一點▲安承甫 五點

吳命煥 二點▲金容在 一點 孫大均 六點▲金元植 二點 權世奈 六點▲安宇淳 一點 宋泰東 三點▲竹山均 一點 金甲鉉 二點▲房萬秀 二點 朴大千 一點▲安先道 一點 廉大成 三點▲金仁山 二點 車孝楨 一點▲金鶴奎 七點 金丙俏 二點▲李明學 一點 金海龍 三點▲嚴敬成 一點 宋樂煥 三點▲元榮植 二點 李太植 二點▲權錫化 六點 趙爷行 一點▲李今順 三點 金興鉉 六點▲鄭福男 一點 李淨奉 二點▲安基浩 三點 林順鴻 七點▲金永浚 四點 尹順學 二點▲林德壽 四點 金鍾麟 四點▲李順在 三點 李禹正 三點▲陳敎龍 五點 李實榮 二點▲陳鎭祖 四點 具善一 一點▲成河淳 一點 申榮均 四點▲金永基 一點 閔元植 一點▲李應睿 四點 朴實熙 一點▲董元植 三點 盧承辯 八點▲森田佐一 十九點 李承九 四點▲李貴男 一點 李起夏 一點▲李奉珉 三點 張壽萬 二點▲金永集 七點 金光洙 十點▲金聖煥 十六點 金鍾錫 六點▲朴承完 一點 朴洪奎 二點▲禹德福 十點 趙仲錫 二點▲朴判龍 二點 金玉岑 一點▲柳玉姬 五點 朴德鳳 二點▲嚴俊煥 九點 金仁鉉 一點▲金德在 三十三點 崔昌福 六點▲黃龜淵 四點 金貞烈 四點▲李順必 五點 崔新道 八點▲朴順河 八點 朴順明 六點▲蔣壽根 四點 李濟赫 三點▲吉萬潤 一點 徐點玉 二點▲崔炳鎬 二點 呂運榮 二點▲申金玉 一點 梁壯完 一點▲崔完根 一點 姜相德 一點▲劉敏浩 二點 申彰熙 一點▲金景興 一點

金明順 一點▲李元順 一點 金源基 三點▲金應俊 二點 朴來千 三點▲柳錫鉉 六點 [illegible]谷 一點▲宋炳承 一點 李文植 六點▲崔興奎 四點 柳萬烈 一點▲金明根 三點 安元善 三點▲嚴谷煥 三點 韓姓女 二點▲無名氏 三點 崔昌絃 一點▲張炳明 二點 崔鎭煥 四點▲金泰成 四點 李昌夏 四點▲姜元善 四點 金春奉 三點▲朴龍煥 一點 徐仁熙 一點▲朴興福 三點 金萬日 四點▲吳根榮 二點 金秉默 五點▲吳國煥 十點 崔祥榮 六點▲元道一 二點 朴聖俊 二點▲朴義遠 二點 朴銀汝 三點▲李俊成 八點 李善宰 七點▲張奈淳 七點 朴榮淳 一點▲李鳳錫 三點 李召史 五點▲丁甫燮 六點 金基承 二點▲李英道 三點 朴順源 二點▲李龍浩 一點 金化俊 一點▲李富鏞 一點 諸浩錫 一點▲安一운 三點 洪奉燦 二點▲權福順 一點 河仁錫 二點▲黃順根 二點 林錫殷 三點▲崔俊熙 一點 成日鏞 五點▲韓春郁 一點 方仁鏞 九點▲安鍾浩 一點 宣淳學 十二點▲崔正文 一點 崔龍凡 十點▲李奉完 二點 金明洙 二點▲古內市之助 六點 大河原德太郎 九點▲成富永 三點 恩地一郎 八點▲梁成三 十一點 任東宰 八點▲朴雲鶴 七點 富岡謙吉 十九點▲金川繁一郎 廿一點 溝口虎一 七點▲酒井源三 九點 金元俊 一點▲康昌熙 三點 嚴明順 一點▲金順基 一點 柳相範 十點▲朴順桂 三點 李正星 二點▲李尙學 五點 田大成 二點▲林銀殷 二點 車大善 三點▲崔明鶴 卅五點 盧順子 十點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二〇、〇〇〇、〇〇 三菱合資會社▲二〇、〇〇〇、〇〇 三井合名會社▲三、三〇岡山縣津山市戶川町長泉寺住職谷口致融(岡山縣津山警察署扱)▲一〇、〇〇大阪府大津町深喜毛絲株式會社緒極元▲四、一〇神奈川縣小田原町居住朝鮮人有志內譯 一〇錢 金鍾述 二〇錢 李壽根 柳麻富 三〇錢 李春達 李春鳳 五〇錢 曹守性 金基龍 金成俊 韓東始 一圓 尹九演▲一六、七五 福岡縣嘉穗郡山田町居住朝鮮人有志 內譯 一〇錢 長尾 井上善助 阪本 朴永先 安龍海 吳鎭出 李小俊 韓德順 金玉根 柳文述 朴福金 李守信 且在玉 崔基浩 洪慶晧 金參述 金永達 金山三郞 一五錢 朴松仁 二〇錢 許夢久 尹龍俊 南龍浩 兪百中 朴奉守 金斗允 朴順道 朴順五 朴興在 徐星吉 福田淸市 福田斗一 松下速雄 崔起宇 松田 村岡太郞 李昌植 朴永守 裵文叔 下村春吉 崔奇玉 石正植 金鍾晧 李仁甲 朴攻洙 吳相燮 阪本 李希泰 金鳳文 李希祥 方聖柱 韓文奎 李希道 閔國春 金弘雲 木下 皇甫榮 周明熏 田中二郞 高橋浩代 金文化 崔成章 崔鳳甲 朴雲集 崔宗業 崔鳳龍 韓文敎 金龍達 金龍袞 五〇錢 崔箕範 金成鎭 金永達 一圓 朴萬台 權壽柱 一圓五十錢 朴尙龍 二十錢 松岡太郞 下村春吉▲一五五、〇〇錢 京春鐵道株式會社社員一同▲二〇、〇〇 京城驛前朝日自動車商會運轉者親睦會▲八、九七錢 海州刑務所瑞興支所員一同 一八錢 金午星 印壽福 李英成 鄭成烈 韓培根 一九錢 方世勳 鄭元先 二〇錢 朴根成 孫昌業 尹聖浩 二一錢 尹錫元 二八錢 橋本實男 田中武志 渡邊末次郞 二九錢 元山 二二 田中實龍 牧野忠篤 片山波壽惠 栗栖丁昭 三二錢 齋藤淳造 藤田貞夫 三三錢 佐藤面 三四錢 泉田初藏 長田京生 內野勤助 神園行雄 三八錢 林町里 四〇錢 小坂井鎭太郞 玉井彌一 小川英一郞 六八錢 森岡淸治

▲一九、五二 漣川公立普通學校▲二五、〇〇 朝鮮殖產銀行本店行員有志(追加分) ▲二〇、〇〇 岐阜縣土岐郡朝鮮靑年會有志(岐阜縣多治見警察署扱)▲三五、七五滋賀縣滋賀郡伊香立村居住朝鮮人有志 五〇錢 孫三龍 孫和俊 曾昌烈 曺在雲 崔成翼 李在龍 朴永先 鄭載昌 金明權 李春植 李在均 徐今聖 崔欽出 金萬龍 金千壽 鄭尹浞 李鍾翰 李諒洙 金鐵權 金判世 申基洙 柳源植 辛正壽 張錫璣 具致壽 金鳳基 馬有道 楊慶善 豊田勇 徐眞祚 朴俊伊 孟乙龍 崔道守 金永春 金又生 姜洙金 李春玉 朴學道 一圓 金厚得 崔卜三 河時安 法再善 一圓五十錢 金夢生 崔炳植 二圓 金成權 三圓 崔明植 五圓 蔣鎭出 (以上三十六圓中送料三十五錢을除함)▲三、〇〇 靑森縣弘前市內鮮融和親睦會▲一、〇〇 兵庫縣立洲本中學校第二學年一組番匠正晃▲一〇、八〇 福岡縣田川郡勾金村居住朝鮮人有志(福岡縣後藤寺警察署扱) 一〇錢 森岡二郞 鄭仁錫 朴漢石 文永順 金貴先 朴今如 朴今守 金順伊 金田今 金又植 宣永福 尹三道 崔好花 二〇錢 文合守 張萬石 吳今伊 朴草植 朱保非 姜氏分 白貴先 李玉順 孫年今 金明行 宋春植 朱敏善 孫俊伯 吳在相 金榮道 金炳模 宋龍雲 安甲浩 孫鐵岩 金順默 崔仁錫 李光順 三〇錢 張仁出 徐章玉 張元錫 薛龍學 權再得 朴日松 韓甲龍 金仁吉 張斗權 金東仁 具鳳杜 四〇錢 金文福 張元伊 五〇錢 文植萬 金宗煥 五〇錢 兵庫縣多可郡黑田庄村 尹昌鉉▲一〇〇〇 京城府旭町 芳適家(朝鮮新聞社扱)▲一〇、〇〇(同) 요시노야醫者一同(同)▲二、七〇 京城地方法院平康出張所職員及司法書士一同(同)▲一、〇〇〇、〇〇 京城府賓命町右硏鑛業株式會社(同)

九月十日現在累計 七五、〇〇一、九四

大懸賞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壹本式)
(十五錢지리)

粉白粉의不便不經濟한缺點을安全히업시한固形당고도ー랑을 只今사시는분에게 빠짐업시드립니다
그外에左의規定으로훌늉한 二重賞品이當籤됩니다

各國代表選手
高杉早苗(日本)
ジーン・パーカー(アメリカ)
マレネ・デイトリッヒ(ドイツ)
グレタ・ガルボ(スエーデン)
シモーヌ・シモン(フランス)

銀幕의人氣者
オリンピック大会
映畫스타ー의이름알기

美와魅力의近代化粧料

答案쓰는法
寫眞의五人의스타ー名을다음과가티써서보내주십시요
日本……高○早○
アメリカ……ジー○・パ○ー
ドイツ……マ○ネ・デイト○ッヒ
スエーデン……グ○タ・ガ○○
フランス……シ○ン○・シ○ン
(○中에 文字를너시오)

答案送法
答案에는반듯이당고도ー랑의렛델(瓶에貼付한렛델을물에적시여떼면다)이던가固形당고도ー랑의函中에封入된說明書를添付하야住所姓名을明記하여서너십시요(封筒에 三錢切手貼付할것)正解者中에서抽籤하야(警察官新聞社員立會)左記의賞品을贈呈합니다

締切 昭和十一年九月三十日
發表 昭和十一年十一月上旬 本廣告掲載新聞紙上
送り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株式會社 宇野達之助商會懸賞係

굉장한이二重大賞品

壹等 特選訪問着・ジーン・パーカー好み アフターヌンドレス 拾名
貳等 絹夜具・洋家具セット・三面鏡 五十名
參等 高級銘仙・刺繡入本絹名古屋帶・新型旅行鞄・フランス人形 百名
四等 晴雨兼用パラソル・美術置時計・特製ハンドバッグ(以上各等一點自由御選擇) 二千名
五等 白粉下のいらぬゑり白粉 ブルース(定價壹圓) 壹個宛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壹本宛

スマートな容器入
高級化粧用パフ付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굴色에應하야 一層아름답게되는
一般婦人에게는……肌色
色이힌분에게는……白色
色이푸른분에게는……淡紅色
히지안흔분에게는……早晚色
色이푸르고힌분에게는……爽健色
色이붉은분에게는……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 六十錢

固形タンゴドーラン
당 고 도 ー 랑

問題中의製鐵所

北朝鮮에建設하기로 드듸어最高方針決定

製鐵國策上 開發이 重大視되고 잇든 咸北茂山鐵鑛에 關하야서는 去十日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特히 大野政務總監도 臨席하야 茂山開發에 關한 總督府의 最高方針에 對하야 愼重協議하얏는데 總督府의 開發對策의 基本方針은 大體 如左히 決定되엿다

一、茂山開發은 鐵鋼問題解決上 重大性이 잇서서 그本格的開發을 總督府에서 極力 促進할것

一、茂山開發과 關聯하야 北朝鮮地方에 銑鋼一貫의 新製鐵所를 建設시킬것 經濟的으로나 地理的으로보나 北朝鮮製鐵所가 有利하고 國防上에도 必要하야 此等을 綜合하야 事業主體의 如何를 不問하고 北朝鮮에 建設시킬것

一、日本內地의 製鐵國策과 方針을同一히 進行하야 製鐵所問題에對하야 日本內地 朝鮮間에 圓滑한協定을 行케할것

一、交通問題 其他에는 開發事業의 進行에 呼應하야 準備를 進行할것

以上約四項에亘하야 方針이決定되엿는데 此中 朝鮮에 製鐵所建設을 總督府가 다시 새로正式으로 最高方針으로 決定한것은 今後의 鐵鋼國策問題의 將來에注目할 大問題를 投하는것으로注目된다

茂山鐵鑛開發을 日鐵、三菱에交涉

茂山鐵鑛開發과 製鐵所의 朝鮮內設置方針은 十日의 總督府關係局課長會議에서 決定을 보앗스므로 殖産局長은 近近 上京하야 民間의 折衝을 開始하고 뒤니어 大野政務總監은 明年度豫算에 關하야 中央과 折衝하기 爲하야 十一月初渡東하므로 其際 總監으로부터도 兩社에 對하야 開發과 製鐵所設置를 勸誘하야 可及的速히 實現을 期하기로 되엿는바 開發과 製鐵은 三菱에서 引受하고 製鐵所는 日鐵의 손으로 淸津에 設置하리라고 보힌다

하야 郡內에는 五個漁組나잇서 水産蔚山으로서도 有名하다 水産蔚山郡內에서 産出하는 海産物은 蔚山郡內 總生産物의 殆半을 占한다는바 이제 蔚山郡總漁獲高를보면 다음과가튼데 魚類四十七種가운데 가장만히잡힌 것은 고등어라고하며 도모지 不漁成績을 보힌것은 明太魚라고한다 그리고昨今郡內 細漁民의副業本業으로서 極力 郡水産課에서 獎勵하는 海苔도 昨年度에는 二十五萬五千六百七十키로에 達하야 前年에比해서 倍의增加를 보앗다는바 蔚山郡의 海苔는 이海苔獎勵에 適當한 곳이라고하며 더욱 압흐로는 西生江東等 漁港에는 極力獎勵할 方針이라고한다

變態的天候로 稻結實不良

今後의天候가關心事

稻는 이삭이때서 開花期도이미經過하얏스나 그사히의 長霖으로 朝鮮全體의 稻作이 一般的으로 成育이 不良할뿐만아니라 特히 受粉期의 雨天으로말미아마 受胎에影響이 莫大하다고하며 더욱히 氣溫에잇서서는 變化無雙하야 例年에드문 怪現象을 나타내고잇는關係로 稻作에對한 不安은 日甚한터이라는바 이에對하야 京畿道農會林技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今年과가튼 氣候는 近年에보기드믄 氣候이다 出穗開花期에 長霖과 氣溫의 變節的變化는 稻의 結實에 甚大한惡影響을 줄것은勿論이어니와 今後의天候의 好轉을보지못할날이면 想像以外로 被害가莫大할것이다

蔚山漁獲高

蔚山郡은 蔚山彦陽을 中心으로 農産蔚山으로서 이름잇슬뿐더러 또한東京으로 蔚山灣과 日本海에 面

咸北一帶에 木材景氣

各種土木工事旺盛

【淸津】咸北一帶大小都市에 勃興하는 大小工場의 建築等으로 各道內木材景氣는 近來보기드믄 盛況을이루어 咸北의 三大景氣 水産、木材、滿洲特産 景氣中의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다 卽 城津의 高周波工業工場、吉州의 北鮮製紙工場、茂山의 三菱鐵鑛 古茂山의 小野田세멘트工場、淸津의 魚油肥工場을 비롯하야羅南會寧의 陸軍擴張工事、淸津、羅津의 都市計畫令에 依한 建築熱과 雄基 城津等의 建築熱 其他 滿鐵 朝鐵의 沈木需要增等으로 原木이 不足한 狀態이어서 木材景氣는 絶頂에 達하고잇다

平南養鷄副業 販賣方面改善

平南道에서는 農家副業으로서 養鷄를 獎勵하야 農家의 經濟的更生에 一助를삼고잇스나 産卵販賣에關한 施設이 不足되야 斯業發展上 阻害가 적지안흐므로 販賣施設의 確立을期하고저 具體的方法을 考慮中이든바 今般 鷄卵共同販賣所를 設置하고 各養鷄部落을 單位로 集卵組合을 結成케하야 集合된 部落産卵을 郡農會와 金融組合에서 檢卵하야 共同販賣所로 出荷케할 計畫을 樹立케되엿는데 이制度는 生産者로부터 直接으로 消費者에게 産卵供給이 可能케될은 勿論 平壤、鎭南浦가튼 都市에는 鷄卵需給上 圓滑을 期치못하야 卵價가 非常히 昻騰되는 反面에 山間養鷄部落에서는 出荷組織이 完全치못하야 近鄕에서 廉價로放賣하게되는等 諸矛盾이 一掃될것이어서 養鷄平南의 一步前進을 爲하야 一層拍車를 加하는結果를 낫케될것이라하야 만흔期望을하고잇다

平北棉作發育頗良

平北의 今年度在來棉成育狀況은 目下 極히 良好하다 昨年은 段當平均의 收穫量四十九斤이엿는데 今年은 五十七斤의 收穫은確實하다고한다 그러고 平北은 氣溫關係上 棉作은 不可能한것가티 一般이보앗는데 平北에서 本格的으로 獎勵를 行한지 僅二個年에 段當五十七斤의 收穫을엇게되야 決코不可能한것이아니라는것이 證明되엇다 이로서 道에서는 來年度부터 棉作栽培에 加一層注力하게되엿다

十年度國庫現計와 明年度豫算編成(下)、

現計에依하면 租稅收入總額은大約九千九百八十九萬九千圓으로되어 同年度豫算에 比하야 七千百十五萬七千圓이 또 九年度現計에 比하야 五千八百七十一萬五千圓이 各히 增加하얏는데、各稅目中 前年度決算現計에 比較하야 減少를 示한것은 酒稅뿐이고 그他의 稅는 모다 增收狀態이다。

特히 所得稅、營業收益稅、關稅等의 躍進이 顯著한것은 軍需品工業、輸出品工業等의 殷盛을 反映하는것으로 所得稅와如한 것은 明治年間에 地租가 占하고 그後 酒稅가 占하고잇든租稅의王座를 奪取하야 一億二千萬圓으로 豫算과 前年度現計에 比較하야 增收를示하고잇는 狀態이다。勿論 徵稅技術의 發達과 稅務官吏의 手段으로 稅收入의 增加를 招來하는事實도 看過할수는 업는일로 最近 官廳되고잇는 苛斂誅求의弊도 或은 此邊의 理由에서 나온것일것이다。그리고 大藏省에서는 今日 아직 法人組織에依한 合法的脫稅가 만흠을 遺憾으로 넉이고 잇슴으로 明年度부터는 稅務機構의 擴大强化를 圖하야 逋脫의餘地를될수잇는限 縮少할方針이라 함으로

增稅의 實行과 아울러 租稅收入은 一層增收를 圖할수잇게될 것이다。

砂糖消費稅、織物消費稅等이相當한 增收를示하게된것도 注目할 現象으로 四年有餘에 亘한 積極政策의 好影響이 消費部面에 及하게되엇다고보면 現行의 經濟界에도 多少의 光明을 投하는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地租와如한것도 年年減少치안흘수업는바 現計上에 若干이나마 增收를 보이고잇슴은 農村의 回復된 經濟面이 잇다만 이와同時에 災害의 打擊에 겨우 回復되게된 地方이잇슴을 말하는것이라고 보힐것이다。

그他資本利子稅의 增收는 銀行預金의 增加를 示하고 相續稅의 增收는 三井其他大納稅者에 依한 當該年度의 年賦納金이 만혓든것을말하고 鑛業稅增收는 産金熱의 旺盛을 反映하며 取引所稅의 增收는 證券景氣가 旺盛치안흠을 表現하고잇는等 租稅의 動向을 通하야 본 經濟界의 諸相은 右에서 보는바와 아울러 興味잇는 것이다。

酒稅만이 前年度現計에 比하야 九百十萬圓이 減收를 示하고 잇는 것은 注目을 끄는데 이는 全然 酒造石高減少에 基하는 것으로 農村의 不況과 國民의 消費力減少를 表現하는 것이다。

그리고 臨時利得稅는 臨時部收入中에 들어잇는데 이것이 豫算에 比하면 四百二十萬圓이 잇섯슴에 反하야 豫算에 比하면 減少를 示한것은 稅務官吏의 操作을 따르는지라도 興味잇는 點이다。

印紙收入에 對하야서는 豫算의 推算이 多少 過大하얏든것을 示하고잇스나 官業及官有財産收入과함께 모다 前年度現計에 比較하야 增收를 將來하고 明年度豫算의 編成에 當하야서도 租稅와 아울러 增收를 待하는 對象으로될것이다。官業收入에 있서서는 森林收入、專賣局益金、鑛業益金收入等의 增收가 主要한것이므로 指摘하면 足할것이다。

그他 日本銀行納付金이 前年度現計에 比較하야 一千三百萬圓의 減收를 示하얏슴은 公債買却益의 減少에 基하는것이다

以上의 主要한 計數를 示하면 다음과 갓다。

(單位千圓、△印減)

	十年度現計	豫算에比하야增減	九年度現計에比하야增減
一、租稅			
所得稅	三七、三三九	三、四五二	一三、八九四
地租	一九、〇四二	二三〇	三六六
營業收益稅	一七、一三三	六、六三三	八、四八六
資本利子稅	一五、〇四八	一四〇	一七五
織物消費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消費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引所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關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噸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業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印紙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官業及官有財産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日本銀行納付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雜收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臨時利得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最後에 歲出에對하야 一考하면 明年度歲出豫算은 大藏省에 要求된 各省의 要求額이 三十三億五千二百餘萬圓으로 前年度歲出豫算에 比較하야 一億二千萬圓에 達하야 大藏省의 査定方針인 二十三億圓에 比하면 約十一億二千萬圓의 超過가 된다고 하나 國民이 各히 減少하얏다고는하나 要求額이 巨額인 點은 不可避의 事實이라 하야 國民의 負擔을 加重케하는 結果가 아직 不用을 生하고잇는 事實은 財政上 決코 자랑할만한것이 못된다。勿論 그 큰原因은 大藏省의 土木事業費、陸軍省의 滿洲事件費等에 存하는듯하야 各各 經費의 內容에 相當한 事情이잇는터이나 財政當局의 不手際의 結果라고 할 수 잇는 國家全般의 豫算者로는 經費의 支出에 當하야 愼重히 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고생각된다

順川郡內牛市場

益益繁盛의一路

日集散頭數一萬二千餘頭

【舍人】平南 順川地方에는 近來畜牛熱이 高潮되고잇서서 郡內各牛市場은 漸漸 好況을 示하고잇는데 今秋에 들어서면서 더욱히 集散이 만하젓고 賣買狀況도 從前의 好績을 보이고잇서 一大繁盛의 길을 것고잇는중이다 郡內의 順川 舍人 慈山 新昌 殷山等 五個市場의 去月 牛集散數量을보면 無慮 一萬二千餘頭에 達하얏스며 其中 賣買頭數만도 二千四百餘頭로서 其代價는 勿驚 二十五萬圓以上에 達하고 잇는바 日本內地로도 移出됨이 不少하다고 한다 그리하야 順川의 畜牛聲價가 漸次 놉하짐을따라서 各牛市場의 繁盛은 加一層 好步調를 보히는중에잇다고한다

咸南牛移出旺盛

咸南道로부터 八月中에 日本內地方面에 移出한牛頭數는 七百二十七頭로 同價額은 五萬二千九百五十七圓에 達하엿다고하며 同[illegible] 一月以降 移出한 牛頭數累計는 三千三百五十五頭로 同價額은二十三萬四千九十餘圓에 達하는데 八月中의 移出地方은아래와갓다

福井	五百九十五頭
東京	九十四
長野	十六
福岡	二十二

小作委員會業績

取扱六千三百餘件中 九割六分을勸解解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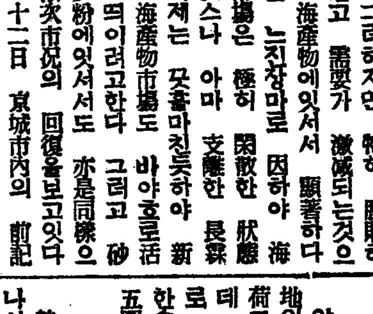
府郡島의 小作委員會는 農地令의 實施以來 依然 小作紛爭의 飛躍的激增에 直面하야 大繁忙을 極하고잇는바 昨十年度中의 取扱實績을 農政課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二百三十의 委員會는 十年度中에 六千三百九十九件의 小作紛爭을 受理하야 處分하얏는데 此中 小作委員會의 活動에依하야 勸解로 解決된것이 實로 總數의九割六分、六千百件을 超過하고 四分弱이 그他의 解決에 依하얏다

朝石元山工場竣工

【元山】朝鮮石油元山工場은 지난八日에 竣工式을 擧行하얏는바 이工場은 大規模의 設備를 한것으로 이工場에서 生産되는 石油만으로서 넉넉히 朝鮮內의 需要에 應할수잇다고하며 同會社에서는 벌서 全朝鮮에 二十一個所의 特約店을 設하고 今後 大大的으로 販路를 擴張할 計劃이라한다

端川에朝運出張所

朝鮮運送에서는 咸鏡線端川驛이 朝窒의 端豐鐵道의 起點이되야 奧地에 朝窒의黃水院江水電建設과 北朝鮮製紙吉州工場原木輸送關係로 將來 더욱貨客의 移動輻輳를 豫想하고 同驛에出張所를 來三十一日부터 開設하야 初代所長으로 鎭南浦次席中島一代를 起用하기로되엿다



問 鑛業에 對한 講習所 又는 講習會의 有無를 下敎하시옵소서(忠南牙山郡新昌 一讀者)

答 鑛業에對한 講習所 又는 講習會는 適當한 곳이업습니다 獨特殊技術 例컨데 火藥 測量等에 對한 講習은 每年 一回 京城府南米倉町四番地 朝鮮鑛業會主催로 잇사오며 또鑛山緣故者에 限하야 京城鑛業[illegible] 燃料選鑛硏究所에서 每年四月부터 一年間 講習을 行하오니 前記場所에 直接問議하시오

新義州商工業者의苦衷 ①

滿浦線의開通과 商圈分野의變動

交通의變遷이 地方經濟의 盛衰를 左右함은 古往今來에 그 事例가 歷然하다 實上 우리 新義州란것도 京義線의 開通과 安奉線의 連絡으로 因하야 생겨난 新興都市다 只今 滿浦線鐵道의 敷設이 새로 생기게되자 이로因하야 鴨綠江上流地方의 經濟界에 大變革이 이러나고 商圈分野에 變動이 생길것은 必至의事實이다 그러면 그結果로 現在 新義州가 가지고잇는 鴨綠江沿岸及 平北奧地의 商圈에 어떠한影響이 생길것이며 또 그 防衛工作으로 新義州는 무엇을할것인가 實로 우리新義州의 運命을 左右할 經濟建設의 根本的命題이다 新義州商工會議所에서는 過般 經濟調査班을 編成하야가지고 昌城、碧潼、楚山、渭原、滿浦鎭、江界等地를 訪問한 後 有志當局과 意見交換을하는同時에 奧地一帶의 經濟各般의 實情을 調査하얏는데 그結果를 同所臨時評議員會에 報告하얏는데 이제 斯界와 經濟對策에 關한 參考資料에 供코저하는바

[...]部는 鐵道[...] 交通路가[...]하야 前者는 主로[...] 商圈系統及[...]

[...]城地方은 奧地와 連絡하고 도로 近百自動車網의 普及으로 因하야 京義線 孟中里、定州、宣川等으로부터도 江岸都邑에 連絡하는運輸系統이잇다 그리고 各地와의 商業去來는 相當히 繁榮하는데그根幹的中心勢力은新義州와멋平壤이다 滿浦鐵道敷設前에平壤에서오는 物資는 新安州와 价川을지나 牛車便으로 安滿道路로 輸送하얏는데 滿浦鎭까지 十數日의 時日을 要하얏스므로 鴨綠江水運의 便에 比하야 時日은 大差가 업스나 運賃은 割高하므로 新義州의 商圈은 鴨綠江沿岸一帶에 進出하얏다 그러나 鐵道가 一部開通됨을 따라 新義州의 商圈은 漸次 減縮되는 形便인데 昭和十三年末 順川、滿浦鎭間의 鐵道가 全開通되는날이면 平北道當局의 滿浦線集注主義的 道路補修及의 完成과 相俟하야 鴨綠江上流及 奧地一帶에 全面的 一大經濟的變動이 이러날것은 避치못할 事實이다 이것이 新義州의 現有商圈에 波及될 影響이 甚大할것은 想像키 不難한 事로 于先 各地의 現況을 摘記하면 如左하다。

▲義州 農林産物中 米、大豆及 木炭은 大部分 新義州로 搬出되나 玉蜀黍는 平壤 玉蜀黍쌀은 日本內地로 牛는 日本內地及 南朝鮮 豚은 平南 牛皮는 京城及大阪 羅蔘은 平南及忠南으로 移出된다 또 邑內를 中心으로한 物資의 需要는 主로 新義州로부터 供給을 受하고잇스나 고무靴『지까다비』等은 平壤으로부터 또 文房具 日用雜貨等도 그 一部는 宣川으로부터 移入되다 各地와의 手形關係를보면 如左하다

	口數	金額
總額	一、〇六〇	一五六、二六六圓
◇內譯		
新義州	三六七	六九、六五五圓
平壤	二五三	三三、〇〇九圓
京城	二一六	二〇、〇九七圓
宣川	二七三	二六、二七一圓

▲朔州 主産物은 鑛産인데 그大部分은 鎭南浦、平壤、京城으로 移出되고 新義州로 搬出되는 物貨는 大豆 蕎麥 木炭 麻布等에 不過하다 米는 地元에서 消費함에도 오히려 不足되는 程度의 蓄額이오그他 諸品은 平壤으로 牛는 泰川 龜城으로 移出되는外 特記할만한것이업다 또 物資의 需要는 主로 新義州로부터 供給되지만은 日用雜貨等은 平壤及宣川의 商圈이 進出하야 新義州와의 去來總額의 五割假量을 占하엿다 各地와의 手形關係는 如左하다

	口數	金額
總額	四四七	七四、八七四圓
◇內譯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二五、八〇〇圓
京城	[illegible]	一、七四二圓
宣川	[illegible]	九、三〇五圓

▲昌城 新義州로 搬出되는 重要한物資는 大豆及木炭이오 그外에 綿은 平南으로 明紬인바茶는 朝鮮內名地로 移出된다 需要品은 主로 新義州로부터 供給되는 中이나 綿布는 平壤及京城으로부터 日用雜貨는 平壤及宣川으로부터 그一部를 移入하고잇다 各地와의手形關係는 如左하다

	口數	金額
總額	[illegible]	二〇二、三三四圓
◇內譯		
新義州	[illegible]	一三九、六七七圓
平壤	[illegible]	一八、六〇七圓
京城	[illegible]	一一、一二七圓
宣川	[illegible]	八、〇四六圓

▲碧潼 新義州에 搬出되는 主要한 物貨는 大豆요 米는 郡內及 楚山의 需要에 充하는 程度의 産出이 잇슬뿐이다 大豆도 近年에는 道路의 開通을 따라 滿美方面에『트럭』으로 搬出되고 新義州로 流下하는것은 減退되는 傾向을 示하고잇다 需要物資는 主로 新義州에서 供給하고잇스나 綿布、白뽀고무靴『지까다비』洋襪、日本酒等은 平壤으로부터 移入되다 各地와의 手形關係는 如左하다

	口數	金額
總額	[illegible]	二四、五七六圓
◇內譯		
新義州	六〇	九、九九六圓
平壤	[illegible]	三、七五二圓
京城	[illegible]	一八、〇五五圓
宣川	[illegible]	九〇六圓

此外에 特記할것은『雩時』의 最近發展인데 新義州와의 手形關係가튼것도 昭和八年에口數二八、金額五、四八四圓이든 것이 昨年末에는 一躍口數二〇〇、金額八三、九〇五圓에 達하야 碧潼邑을 凌駕하는 殷盛이다 그原因은 全然 鑛産關係인데 新義州로부터의 物資移入도 顯히 旺盛하다

▲楚山 主要한産物은 大豆 粟、玉蜀黍、棉花、大麻、蕎麥等의 農産物과 鑛産物이다 大豆는 오래前부터 新義州에去來하얏스나 近年에는 鴨綠江으로 流下되는 數量이 顯著히減退하얏다 또 이곳을 中心으로 需要되는 物資는 主로 新義州에서 供給하나 滿浦線이 一部開通됨을따라 漸次 平壤의商圈勢力이 擴大되는中인데 現在 砂糖、淸酒、漬物等의 食料品을 爲始하야 和洋雜貨、文房具等까지도 平壤으로부터의 移入이 漸增하는 現象이다 京城의 商圈도 微弱하고 또宣川은 碧潼을 最後로 全혀 商業去來가 업슴으로 新義州와 平壤의 對立狀態라하야도 可하다 各地와의手形關係는如左하다

	口數	金額
總額	[illegible]	一五九、八〇六圓
◇內譯		
新義州	[illegible]	一一、〇四二圓
平壤	[illegible]	二八、三四七圓
京城	[illegible]	六、二二六圓
鎭南浦	[illegible]	六〇〇圓

日用商品市況

長霖期에는 어떠한 取引에잇서서도 그러하지만 特히 廢敗하기가쉽고 需要가 激減되는것으로는 海産物에잇서서 顯著하다 今年은 늦장마로 因하야 海産物市場은 極히 閑散한 狀態에 잇섯스나 아마 支離한 長霖도 이제는 끗을마친듯하야 新秋의 海産物市場도 바야흐로活氣를 띄이려고한다 그리고 砂糖及麥粉에잇서서도 亦是同樣으로 漸次市況의 回復을보고잇다 이제 十二日 京城市內의 前記諸品의 市況을보면 大體다음과갓다

▲미역 堅調 미역은 前週부터 漸次活況을 보기시작하야 今週에드러와서는 入荷나 需要도 漸加되는傾向인데 今日市勢는 한손(二十닢)에 對하야 二圓四十錢 乃至 二圓五十錢 沙草六十五錢가량이다

▲암치 小騰 암치는 當節을이미지낫고 産地의 在庫도 極少한狀態로 入荷도 그에따라서 減少의傾向인데 需要는 도리혀늘러가잇슴으로 市勢는 小騰을示하야 今日 한손(二尾)에對하야 一圓 乃至 五圓가량이다

▲明太 小低 乾明太는 長霖의 閑散期를 지나서 今後好況이 豫想되는데 今日市勢는 한짝(三十두름)에對하야 十三圓五十錢 乃至 二十一圓八十錢가량이다

▲고등어 活況 첨고등어는 인제부터 當節이다 夏期閑散期를지나 今週부터는 入荷도相當하며 需要도 增加의一途이다 今日市勢는 한손(二尾)에 對하야 十八錢이량이다

▲大口魚 軟調 乾大口魚는 需要期를 이미經過한만큼 市況은 閑散狀態이여서 今日은 每斤에 二十六錢가량으로 小低를 示하얏다

▲메르치 好轉 메르치는 인제부터 當節이다 今後入荷도 相當할모양이며 需要도 例年에 依하야 느러갈것이 分明하다 現在京城市內의 在庫는 그다지만치안흐나 今週부터는 入荷도漸增하며 消費도느는傾向이어서 市勢는 每貫에二圓乃至 三圓가량이다

▲砂糖 小低 砂糖은 雨期를지나 漸次需要期로 向하고잇는바 現在入荷도相當하며 在庫도 豊富함으로 今日市勢가 小低를 示하야 六十斤(百斤)入一俵에

白砂糖	二一、〇〇
黃砂糖	二〇、〇〇
分蜜糖	一七、五〇
黑砂糖	一一、五〇

▲麥粉 弱保合 麥粉은 新原을 마저 需要의 漸增을보고잇는바 市勢는 新麥의 出廻에 影響되야 弱保合으로 今日 二重票 二十二斤入一袋에 四圓八十錢가량이다

▲秋繭取引市勢 (對生繭一貫價格)

月日	場所	種別	高價	低價	買價	掛目	數量
九・一	全南・光州	白	三・五三	三・五三	三・五三	三三・〇	三三・〇〇〇
〃二	〃	〃	三・四二	三・四二	三・四一	三一・〇	一三・〇〇〇
〃三	〃	〃	三・五五	三・五五	三・五五	三〇・五	六一・〇〇〇
〃四	〃	〃	三・四二	三・四二	三・四二	三二・〇	二一・〇〇〇
〃五	〃	〃	三・五五	三・三五	三・三五	三〇・五	一〇・〇〇〇
〃七	〃	〃	三・五五	三・三三	三・二九	三〇・五	一三・〇〇〇
〃〃	全北・完州	〃	三・五五	二・二六	三・一四	二八・五	七一・八〇〇
〃八	〃	〃	三・五五	一・六五	三・〇四	二七・五	三七一・〇四〇
〃〃	咸北・吉州	〃	二・八四	一・八四	二・六三	二六・三	六・四四〇
〃〃	全北・完州	〃	三・三六	一・七一	三・〇八	二八・五	三六六・〇一〇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二五	金銀銅鑛	黃海遂安郡大千面延岩面	八月二十日	東京市世谷區池尻町 代表者 樋渡彥九郎 神奈川縣高座郡藤澤町 高梨耕幣 橫濱市中區中里町 濱田健太郎
一三四二六	金銀鑛	平北昌城郡新倉面	八月二十日	寧邊郡梧里面 代表者 梁仁鎬 同古城面 張炳天
一三四二七	金銀鑛	江原江陵郡連谷面	八月二十日	江陵郡江陵邑 鄭煥德
一三四二八	金銀鑛	平北碧潼郡碧潼面	八月二十日	新義州府老松町 楊周平 同 金太弼 碧潼郡碧潼面 金鎔煥
一三四二九	金銀鑛	平北碧潼郡碧潼面	八月二十日	新義州府老松町 代表者 楊周平 同 金太弼 碧潼郡碧潼面 金鎔燮
一三四三〇	金銀鑛	平北朔州郡外南面	八月二十日	安岳郡安岳面 元孝燮
一三四三一	金銀鑛	慶北金泉郡[illegible]面	八月二十一日	東萊郡東萊面 代表者 宋在淳 金泉郡金泉邑 宋炳錫
一三四三二	砂金	全南求禮郡山洞面	八月二十一日	福岡縣田川郡添田町 藪內正次
一三四三三	金銀鑛	咸南長津郡北面	八月二十一日	三水郡江鎭面 代表者 李庚得 長津郡北面 趙時元
一三四三四	金銀鑛	黃海金川郡外面	八月二十一日	京城府[illegible]里町 金[illegible]鏞
一三四三七	金銀鑛	咸北鏡城郡鏡城面豊谷面	八月二十一日	鏡城郡豊谷面 小川正勝
一三四八三	金銀鉛鑛	咸南永興郡仁興面	八月二十一日	元山府本町 山川直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三一	平北泰川郡東面	八月十四日	京城府下往十里 權承天 安東郡臨東面 代表者 柳始番
一三一七四	忠北淸州郡江西面江內面玉山面	八月十五日	大阪市東區淡路町 朝鮮鑛業株式會社
七三〇三	平北泰川郡東面江東面	同	定州郡臨浦面 泰川郡東面 代表者 李得淳 張鳳源
八六三二二	慶南陜川郡伽倻面治爐面慶北高靈郡德谷面	八月十七日	大邱府南城町 崔胤東
八九七五	平北昌城郡新倉面	同	京城府長沙町 代表者 薛元植
一三三四六	平北碧潼郡雩時面	八月十七日	同仁寺町 金斗榮 同貫鐵町 金春三 同井町 趙炳玉 昌城郡青山面 姜鳳瑞 共同鑛業權者李鍾健의持分을新義州府榮町金永杰에移轉함
一〇一五七	咸北會寧郡碧城面	八月十七日	會寧郡會寧邑 代表者 植森濱吉 大阪市浪速區曙町 植森皆吉
八六八六六	平北楚山郡南面	八月十八日	莞島郡莞島面 代表者 金在敎 同蘆花面 金商己 楚山郡南面 成元瑾
一〇九六一	江原淮陽郡長楊面	八月十八日	京城府平洞 代表者 尹炳泰 同嘉會町 李輔錫 元山府南山洞 元榮燁
一二八二〇	忠南忠州郡仰城面	八月九日	昌寧郡昌寧面 金正祈
九九九四	忠南天安郡成歡面笠場面	八月十九日	東京市大森區調布嶺町 代表者 奧村鏡雄 天安郡成歡面 馬場芳[illegible]
四五七七五	咸北鏡城郡朱南面	八月九日	京城府司諫町 金桂祚
六一二三四	同	同	同
六四六九〇	同	同	同
六二二二五	咸北慶興郡上下面	八月十九日	明川郡西面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
六二二二八	同	同	同
六二二二九	同	同	同
六二二三〇	同	同	同
九三三三七	忠南公州郡牛城面	八月二十日	島根縣簸川郡岩戶村 岩戶淺太郎
五八八七七	咸北會寧郡鳳儀面碧城面	八月二十日	會寧郡會寧邑 岩村長市
一一一七七	忠南洪城郡長谷面	八月二十日	瑞山郡近興面 申世煥

◇共同鑛業代表者指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三四六	平北碧潼郡雩時面	八月十七日	代表者를金栗完으로指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四三〇	平北江界郡龍林面咸南長津郡上南面	八月十八日	徐泰植任意脫退함

黃昏 (176)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교차선(交叉線) (一)

경재는 정님이와 잘아는사이도 아니엇고、또그다지 맛당하게 보는 사람도 아니엇다。

사장실에서 몃번 본일은 잇스나 그때마다 정님은 사장실로 오는 손님에게대한 례의를 잃지안흘 정도로 요사스런 버릇을 숨긴 얼보려스러운 정잔한 인사를 보냇슬뿐이오 경재는 그저 심상히 인사를 바닷슬뿐이다。

경재는 오늘도 남의 압흘지나는때의 례의로 약간 몸짓만 보이고 그대로 지나처 사장실로 들어가랴하엿다。

그리하야 출입문 손잡이를막잡다가 그는 문득 생각이나서

『손님이 기십니까?』

하고 돌아서 정님에게 물엇다。

『네、아니!……』

정님은 이러케 요령부득의대답을 해노코는 조금후에야 제정신이 도는듯이、

『아닙니다。들어가서도 상관업습니다』

하고 고처 대답하엿다。

그러나 정님의 하는양이 암만해도 수상해서 경재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대로 서잇기가무엇한듯이 문을 밀고 성큼 사장실로 들어섯다。

『아、자네、오나 어서 오게』

사장이 놀란듯 엉결에 이러케경재에게 말할때에 려순은자리를일어나며

『나가겟습니다』

하고 고개를 수그린채 돌아나오다가 이편방에서 경재와마조첫다。

『선생님、오래간만입니다』

려순은 얼마동안 격조햇든자랄을 대하야 서먹서먹한 생각으로 점잔케 인사하엿다。

『아、려순씨!』

경재에게는 전연 의외엇다。

사장이 경재를보고 만이제린 이상으로、경재는 려순에게 놀랏다。

경재는 물론、려순에게 대한 사장의 불치한 야심을 알고잇스며 려순이가 거기대해서 못박히는 모욕을 숨겨가지고 잇는것도 잘알고잇다。

(어려케돼서 려순이가 사장실로올라왓슬까? 단둘이서 무슨 애기를 햇슬까?)

하는것이 그다지 큰일은 아니언만、그래도 경재에게는 한가지 풀수업는 수수꺽기와가티 생각되엇다。

정님이가 문밧게서 무엇을 엿듯고 잇는것까지 종합해보니 갑자기 이안의 공기가 괴이를것을 느끼지못한것 가텟다。

그러나 물론 려순에게 재변해서 왓슬리는 업는것이엇다。아모러나 사장이 적다 그러케 마련해노앗슬것은 떠어질것이지 업는 일이엇다。

『그러면 또……?』

경재는 몸서리가 나도록 사장의 용융한행동에 징그러운생각되엇다。

그러나 그새 경재자신도 저 모르는 사이에 못칠 변해버렷다。

려순에게 대한 애착도 그전 만치나마 줄기찬것이 아니엇고 현옥에게 대한 태도도 그전보다는 행결 연화(軟化)하여버렷섯다。

려순이가 처음 행방을 감추엇슬당시에는 현옥이가 더욱 구찬케 생각되엿고、뿐만아니라 모든 인간이 적다 성가시게만 보이기도 하엿스나、이러저럭 그런 무롭이 지나가는데 따라서 려순에게로 가라는 용기가 줄어지고、또 현옥에게서 멀어지라든 결심도 부드러워젓다。

『인간이란 결국 되는대로 사는수바게 업는게다』

하는것이 때따라 차자드는 그뒤에온 인생관이엇다면

『사랑이란 그여、그런것이다』

하는것이 그의 변해진 련애관이라고 할것이다。

이러케 미적지근해진 경재의 심경은 현옥에게 대해서도그다지 못되게는 태도를 가질수 업게되엿다。

『녀자란 모다 그꼴이 그꼴이지……좀 낫대야 그러코좀 못하대야 역시 그런거지』

려순을 일흔 얼마후부터 경재는 이러케 주대업는 관대한 생각으로서 사랑때문에나 미움때문에나 그 어느편에도 맘을 고달피하지안코 압호게하지안호려하엿다。

——달팽이의 뿔과가튼 좁은 세상에서 무엇을 다투며 무엇을 괴로워하랴? 무엇을 부러지게 사랑하며 무엇을 까다로히 미워하랴? 애증(愛憎)을 넘는것이 맘의평화를 엇는소이며 그저 그런대로 얼마큼자차코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니랴?……

……경재는 세실 이러한 심경가운데서 살아왓든것이다。

아무 하는일업는 라기만마한 경재의생활은 그의가슴에서 이만큼 예날의 의지와실기를 죽이고 말앗든것이다。